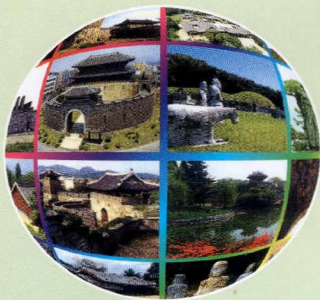


우리고장의 문화재 탐방



수원시자료관



SW002799

수 원 시

여 백

우리고장의 문화재 탐방

수 원 시

여 백



▲ 팔달문(八達門)-보물 제402호



▲ 화서문(華西門)-보물 제403호



▲ 봉문



▲ 방화수류정 및 응연



▲ 서북공심돈



▲ 서북노대



▲ 봉녕사 석조삼존불상-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51호



▲ 용주사



용능-사적 제20호 ▶



▲ 정조대왕 동상

▼ 화령전-사적 제11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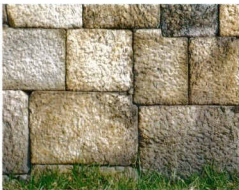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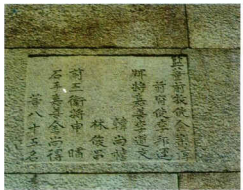
▲ 성곽시설물의 귀면



▲ 성문시설(천정, 홍예, 판문)



▲ 성벽



▲ 시설별 축성책임자를 돌에 새겨 놓은 것 (판달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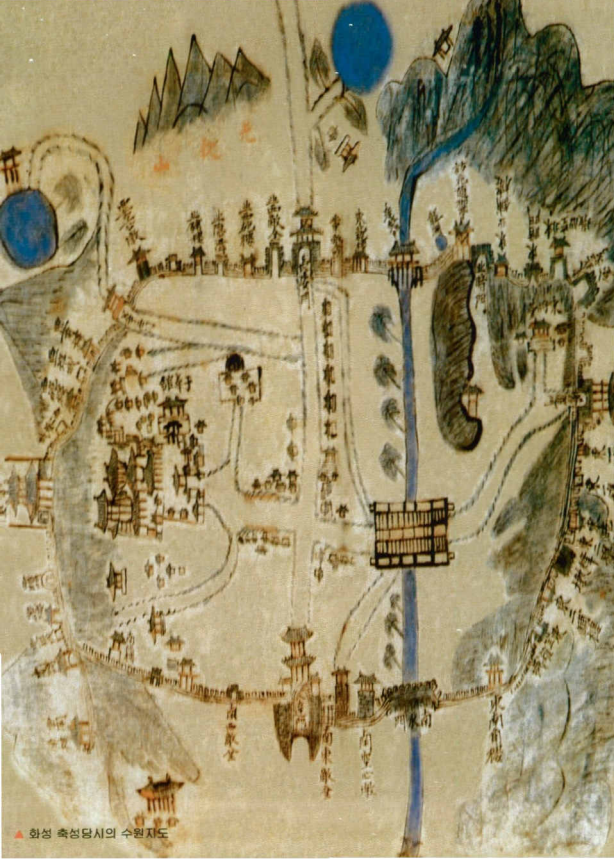
▲ 창성사 진각국사대각원조탑비-보물 제14호



▲ 지지대비-경기도유형문화재 제24호

▼ 수원향교-경기도문화재 자료제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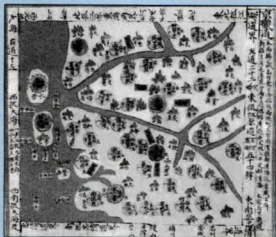


목 차

I. 수원의 연혁	11
II. 문화재 개요	15
1. 문화재개념 및 종류	17
2. 문화재 관리의 개괄	28
III. 우리고장의 문화재	31
1. 국가지정문화재	33
2. 경기도지정문화재	40
3. 향토유적	48
IV. 수원화성	53
1. 연 혁	55
2. 성곽시설물 현황	57
3. 수원화성 복원	72
4. 화성성역의궤 해설	74
V. 용주사, 용·건능	77
1. 용 주 사	79
2. 용·건능	86
VI. 성 곽	89
1. 성곽의 정의	91
2. 성곽의 기원	91
3. 성곽의 종류와 분류	91
4. 성곽의 축성요소	93
VII. 용어해설	101

여 백

I. 수원의 연혁



수원 "화성"축성시 경기도 지도

여 백

I. 연 혁

우리 수원시는 옛이름이 수성(水城), 수원, 화성(華城)등으로 불리워진 고적의 도시이며 효원의도시이다.

- 200년 : 삼한시대(三韓時代)에는 모수국(牟水國)이라 불리워짐.
- 475년 : 고대 고구려시대(高句麗時代)에는 매홀군(買忽郡)이라 호칭하였음.
- 757년 : 통일신라(統一新羅) 제35대 경덕왕(景德王) 16년에 수성군(水城郡)으로 개칭
- 918년 : 고려 태조(太祖) 17년에는 수주(水州)
- 1018년 : 현종(顯宗) 9년에 수주지사(水州知使)를 배치함과 동시에 쌍부, 용성, 정송, 광덕등 4개현을 관내에 배속
- 1271년 : 고려 원종(元宗) 12년에는 수원도호부(水原都護府)로 승격되었다가 다시 수주목(水州牧)으로 승격
- 1310년 : 고려 충선왕(忠宣王) 2년에 수원부(水原府)로 개칭
- 1362년 : 고려 공민왕(恭愍王) 11년에 수원군(水原郡)으로 환원
- 1413년 : 조선 태종(太宗) 13년에 수원도호부(水原都護府) 다시 설치
- 1456년 : 세조(世祖)때에는 판관의 도입지인 진(鎭)으로 되어 한성수호를 위한 사보의 하나로 군대 주둔
- 1794년 : 조선 정조20년 성곽을 축성하고 행궁을 건립하여 수원을 소경으로 하였고 광주의 일용·송동면을 배속시켜 유수영을 설치하고 판관을 배치하였는데 유수 2인중 1인은 경기관찰사가 겸하고 1인은 전관유수로 하였다.
- 1802년 : 순조(純祖) 2년 총리영을 두었다가 고종(高宗) 갑오경장시(1895년) 유수를 없애고 그 이듬해 13도로 행정구역을 개편, 수원군(水原郡)으로 되었다.
- 1910년 : 경기감찰부가 수원에서 경성부(서울)로 이전
- 1914년 : 수원면(水原面)으로 개칭
- 1931년 : 4. 1 부령 제103호로 지방행정제도개혁에 따라 수원읍(水原邑)으로 승격
- 1936년 : 10. 1 행정구역확장으로 인접면인 일왕면, 안용면, 태장면 일부를 편입, 리(里)를 정(町)으로 개칭
- 1949년 : 8. 15 대통령령 제161호로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
- 1963년 : 1. 1 법률 제1175호에 의하여 일왕면(11개리), 안용면(6개리), 태장면(3개리)을 편입, 47개 법정동에 18개 행정동으로 총면적이 84.22㎢로 늘어났다.
1967. 6. 23일 경기도청이 이전되어 경기도의 수부도시로서 시 발전의 계기
- 1978년 : 11. 7 시 조례 제838호로 고화동을 고등동, 화서동으로 분동(19개 행정동)

- 1979년 : 4. 30 시 조례 제873호로 영화동을 영화동, 송원동으로 분동(20개 행정동)
- 1983년 : 2. 15 대통령령 제11027호로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이의리, 하리를 편입, 49개 법정동에 21개 행정동으로 늘어났으며 행정구역 면적이 96.67km²로 확정
10. 1 시 조례 제1139호를 세류2동을 세류2동, 세류3동으로 파정동을 파장동, 정자동으로 분동(23개 행정동)
- 1985년 : 12. 2 시 조례 제1197호로 팔창동, 영천동을 팔달동으로 합동. 화서동을 화서1동, 화서2동으로 매원동을 매탄동, 원천동으로 분동(24개 행정동)
- 1987년 : 1. 1 대통령령 제12007호로 화성군 매송면 금곡리를 서둔동으로, 호매실리를 서둔동 및 평동으로 편입(51개 법정동, 총면적 105. 54km²)
- 1988년 : 7. 1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거 장안구(팔달동외 11개동)와 권선구(매교동외 11개동)로 분구
- 1990년 : 1. 1 시 조례 제1607호로 장안구 파장동을 파장동, 읍천동으로 정자동을 정자1동, 정자2동으로 지만동을 지동, 우만동으로 권선구 매탄동을 매탄1동, 매탄2동으로 분동(28개 행정동)
5. 10 시조례 제1643호로 장안구 송원동을 송죽동, 조원동으로 분동(29개 행정동)
12. 7 시조례 제1672호로 권선구 매탄2동을 매탄2동, 매탄3동으로 분동(30개 행정동)
- 1991년 : 9. 5 시 조례 제1741호로 권선구 서둔동을 서둔동, 구운동으로 분동(31개 행정동)
- 1993년 : 2. 1 시 조례 제1839호로 팔달구청 개청(장안구 : 신안동외 10개동, 권선구 : 매교동의 9개동, 팔달구 : 팔달동의 9개동)
12. 1 시조례 제1872호로 팔달구 우만동을 우만1동, 우만2동으로 분동(32개동)
- 1994년 : 7. 16 시 조례 제1898호로 팔달구 매탄2동을 매탄2동, 매탄4동으로 분동(33개 행정동)
12. 26 시 조례 제1932호로 화성군 반월면 입북리, 당수리를 편입, 권선구 입북동 신설(53개 법정동, 34개 행정동) 또한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일부, 화성군 태안읍 영통리 일원, 신리, 망포리 일부를 팔달구 원천동에 편입, 영통동(법정동) 신설 (총 54개 법정동에 행정구역면적이 117.12km² 확장)
- 1995년 : 3. 16 시 조례 제1941호로 권선구 곡선동을 곡선동, 권선동으로 분동(35개 행정동)
4. 20 대통령령 제14629호로 화성군 태안면 신리, 망포리를 팔달구 매탄3동으로 편입(신동, 망포동 신설 - 56개 법정동, 총면적 121.2km²)

II. 문화재 개요



경기도담굿 - 중요무형문화재 제98호

여 백

II. 문화재 개요

1. 문화재의 개념 및 종류

가. 문화재의 개념

- 우리 조상들의 슬기에 의하여 창조된 문화가치가 있는 사물로서
- 우리나라의 역사상·학술상·예술상 길이 보존해야 할 민족전체의 재산인 동시에 인류공영의 문화유산임.

나. 문화재의 종류

1) 유형에 따라

○ 유형문화재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서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를 말하며, 국가에서 지정하는 국보·보물과 시·도에서 지정하는 시·도유형문화재가 있다.

○ 무형문화재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민속놀이 등 전통생활 속에서 전래되어온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기능과 예능을 말하며, 국가에서 지정하는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에서 지정하는 시·도무형문화재가 있다.

○ 기념물

패총·고분·성지·궁지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학술상 가치가 큰 것과 경승지로서 예술상·관상상 가치가 큰 것,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 포함)·식물(자생지 포함)·광물·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을 말하며, 국가에서 지정하는 사적·명승·사적 및 명승·천연기념물과 시·도에서 지정하는 시·도기념물이 있다.

○ 민속자료

의식주·생업·연중행사등에 관한 풍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을 말하며, 국가에서 지정하는 중요민속자료와 시·도에서 지정하는 시·도민속자료로 구분된다.

2) 지정 여부에 따라

○ 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를 말한다.

○ 비지정문화재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이나 문화재 보호법 및 시·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 일반동산문화재

전적·서적·판목·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 및 민속자료로서 역사상·예술상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지정되지 아니한 동산문화재를 말하며, 이들은 제작된지 50년 이상이고 생존인의 작품이 아니어야 한다.

－ 매장문화재

토지·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노출되지 않은 문화재를 말한다.

－ 기타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가 있다.

3) 지정권자에 따라

○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다음 8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 국보: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국보 제1호: 남대문)

－ 보물: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무구등의 유형문화재중 중요한 것(보물 제1호: 동대문)

－ 사적: 기념물중 유사이전의 유적·제사·신앙·정치·국방·산업·교통·교육·

사회산업·분묘 등의 유적으로서 중요한 것(사적 제3호: 수원 “화성”)

- 명승: 기념물중 경승지로서 중요한 것(명승 제1호: 명주 청학동소금강)
- 사적 및 명승: 기념물중 사적지·경승지로서 중요한 것(사적 및 명승 제1호: 경주 불국사경내)
- 천연기념물: 기념물중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 포함)·식물(자생지 포함)·광물·동굴로서 중요한 것(천연기념물 제1호: 달성의 측백수림)
- 중요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중 중요한 것(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 중요민속자료: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중 중요한 것(중요민속자료 제1호: 덕온공주당의)

○ 시·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시·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거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로 다음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 유형문화재
- 무형문화재
- 기념물
- 민속자료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4호 지지대비”와 같이 시·도의 명칭을 표시하여 지정 시·도가 구분되도록 한다.

○ 문화재자료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거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를 말하며 건조물, 사적 등의 구별없이 일률적으로 지정한다.

*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호 수원향교”로 표기한다.

4)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문화재의 종별	지정기준
1. 보물	<p>1. 건조물</p> <p>가. 목조건축물류 당담·궁전·성문·전묘·사우·서원·루정·향교·관아·객사·민가 등으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p> <p>나. 석조건축물류 석굴·석탑·전탑·부도 및 석종·비갈·석등·석교·석계·석단·석빙고·첨성대·당간지주·석표·석정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p> <p>다. 분묘 분묘 등의 유구 또는 그 부분·부속물 또는 건조물의 모형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p> <p>2. 전적·서적·고문서</p> <p>가. 전적류 사본류에 있어서는 한글서적·한자서적·지술고본·종교서적 등의 원본이나 우수한 고사본 또는 이를 계통적·역사적으로 정리한 중요한 것</p> <p>나. 서적류 사경·어필·명가필적·고필·묵적·현판·주련 등으로서 서예사상 대표적인 것이거나 금석학적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p> <p>다. 고문서류 역사적 가치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p> <p>3. 회화·조각</p> <p>가. 형태·품질·기법·제작 등에 현저한 특이성이 있는것.</p> <p>나. 우리나라 문화사상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이 우수한 것.</p> <p>다. 우리나라 회화사상 또는 조각사상 특히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p> <p>라. 특수한 작가 또는 유파를 대표한 중요한 것.</p> <p>마.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p>

문화재의 종별	지 정 기 준
	<p>4. 공예품</p> <p>가. 형태·품질·기법 또는 용도에 현저한 특성이 있는 것.</p> <p>나. 우리나라 문화사상 또는 공예사상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이 우수한 것.</p> <p>다.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공예사상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p> <p>5. 고고자료</p> <p>가. 선사시대 유물로서 특히 학술적 가치가 큰 것.</p> <p>나. 고분(지석묘등을 포함한다)·패총 또는 사지·유적 등의 출토품으로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p> <p>다. 전세품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p> <p>라. 종교·교육·학예·산업·정치·군사·생활 등의 유적출토품 또는 유물로서 역사적 의의가 크거나 학술적 자료로서 중요하거나 제작상 가치가 큰 것.</p> <p>6. 무구</p> <p>가. 우리나라 전사상 사용된 무기로서 희귀하고 대표적인 것.</p> <p>나. 역사상 명장이 사용하였던 무구류로서 군사상 그 의의가 큰 것.</p>
2. 국 보	<p>1.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중 특히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p> <p>2.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중 제작연대가 오래고 특히 그 시대의 대표적인 것.</p> <p>3.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중 제작의장이나 제작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그 유례가 적은 것.</p> <p>4.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중 형태·품질·제재·용도가 현저히 특이한 것.</p> <p>5.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중 특히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p>

문화재의 종별	지 정 기 준
<p>3. 중 요 무 형 문 화 재</p>	<p>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역사상, 학술상, 예술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극 인형극·가면극 2. 음악 제례악·연례악·대취타·가곡·가사 또는 시조의 영창·산조·농악·잡가·민요·무악·범패 3. 무용 의식무·정재무·탈춤·민속무 4. 공예기술 도자공예·마미공예·금속공예·화각공예·장신공예·나전칠공예·제지공예·목공예·건축공예·피혁공예·지물공예·직물공예·염색공예·옥석공예·자수공예·복식공예·악기공예·초고공예 5. 기타 의식·놀이·무예·음식제조 등 6.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예능의 성립 또는 구성상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기법이나 그 용구 등의 제작·수리 등의 기술
<p>4. 사 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사 이전의 유적 패총·유물포함층·주거지(수혈주거지·부석주거지·동혈주거지 등)·지식·입석·고분 등의 유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2. 제사·신앙에 관한 유적 사지·사우지·제단·사고지·전묘지·향교지·기타 제사·신앙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 성곽·성지·책채·방루·진보·수영지·관문지·봉수대 및 유지·고전장·도읍지·궁전지·고도·고궁·기타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으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문화재의 종별	지 정 기 준
	<p>4. 산업·교통·토목에 관한 유적 고도(옛길)·교지·둑·제방·요지·시장지·식물재배지·석표 기타 산업·교통·토목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p> <p>5. 교육·사회사업에 관한 유적 서원·사숙·자선시설·석각 기타 교육·학예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p> <p>6. 분묘·비등 분묘·비·구택·원지·정천·수석 기타 중요한 전설지 등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p>
5. 명 승	<p>1. 저명한 건물이 있는 경승지 또는 원지</p> <p>2. 화수·화초·단풍 또는 조수·어충류의 서식지</p> <p>3. 저명한 협곡·해협·곶·급류·심연·폭포·호소 등</p> <p>4. 저명한 해안·하안·도서 기타 경승지</p> <p>5. 저명한 풍경의 전망지점</p> <p>6. 특색있는 산악·구릉·고원·평원·하천·화산·온천지·냉광천지</p>
6. 천연 기념물	<p>1. 동·식물</p> <p>가. 한국 특유의 동·식물로서 저명한 것 및 그 서식지·생장지 나. 석회암지대·사구·동굴·건조지·습지·하천·호소·폭포의소·온천·하구·도서 등 특수지역이나 특수 환경에서 서식하거나 생성하는 특유한 동·식물 또는 동·식물군 및 그 서식지·생장지 또는 도래지</p> <p>다. 진귀한 동·식물로서 그 보존이 필요한 것 및 그 서식지·생장지</p> <p>라. 한국 특유의 축양동물</p> <p>마. 학술상 가치가 큰 사충·명목·거수·노수·기형목</p> <p>바. 대표적인 원시림, 대표적 고산식물지대 또는 진귀한 삼림상사, 진귀한 식물의 자생지</p>

문화재의 종별	지 정 기 준
	<p>아. 저명한 동·식물의 분포의 경계가 되는 곳</p> <p>자. 유용 동·식물의 원산지</p> <p>차. 귀중한 동·식물의 유물발견지 또는 학술상 특히 중요한 표본과 화석</p> <p>2. 지질·광물</p> <p>가. 암석 또는 광물의 생성원인을 알 수 있는 상태의 대표적인 것.</p> <p>나. 거대한 석회동 또는 저명한 동굴</p> <p>다.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는 암석 또는 저명한 지형</p> <p>라. 지층단 또는 지괴운동에 관한 현상</p> <p>마. 학술상 특히 귀중한 표본</p> <p>바. 온천 및 냉광천</p> <p>3. 천연보호구역</p> <p>보호할 만한 천연기념물이 풍부한 대표적인 일정한 구역</p>
7. 중 요 민 속 자 료	<p>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중 한국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것.</p> <p>가. 의·식·주에 관한 것.</p> <p>궁중·귀족·서민·농어민·천인 등의 의복·장신구·음식용구·광열용구·가구·사육용구·관혼상제용구·주거·기타 물건 또는 그 재료 등</p> <p>나. 생산·생업에 관한 것</p> <p>농기구·어렵구·공장용구·방직용구·작업장 등</p> <p>다. 교통·운수·통신에 관한 것.</p> <p>운반용의 배·수레·역사 등</p> <p>라. 교역에 관한 것.</p> <p>계산용구·계량구·간판·점포·감찰·화폐 등</p> <p>마. 사회생활에 관한 것.</p> <p>중답용구·경방용구·형벌용구 등</p> <p>바. 신앙에 관한 것.</p> <p>제사구·법회구·봉납구·우상구·사우 등</p>

문화재의 종별	지 정 기 준
	<p>사. 민속지식에 관한 것. 역류·점복용구·의료구·교육시설 등</p> <p>아. 민속예능·오락·유희에 관한 것 의상·악기·가면·인형·오완구·절귀용구·도구·무대 등</p> <p>2. 제1호 각목에 제기한 민속자료를 수집 정리한 것으로서 그 목 적·내용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히 중요한 것.</p> <p>가. 역사적 변천을 나타내는 것. 나. 시대적 또는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는 것. 다. 생활계층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p> <p>3. 민속자료가 일정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소재한 경우에는 민속 자료의 개별적인 지정에 갈음하여 그 구역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집단민속자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가. 한국의 전통적 생활양식이 보존된 곳. 나. 고유민속행사가 거행되던 곳으로 민속적 풍경이 보존된 곳. 다. 한국건축사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민가군이 있는 곳. 라. 한국의 전통적인 전원생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곳. 마. 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설화와 관련이 있는 곳. 바. 옛 성터의 모습이 보존되어 고풍이 현저한 곳.</p>

5) 보호물·보호구역의 지정

○ 지정요건

국보·보물·사적·천연기념물·중요민속자료의 보호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 보호한다.

○ 지정권자

문화재관리국장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구 분	지 정 기 준
1. 국보·보물 및중요민속 자료의 보 호 구 역	1. 목조 및 석조건축물은 각 추녀끝이나 또는 건물 최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서로 연결하는 선에서 20미터 내지 100미터(사찰건조물인 경우에는 2천미터) 이내의 구역 2. 석탑·전탑 등은 지대석에서 10미터 내지 25미터 이내의 구역 3. 석비·부도·석종·석불(건물내에 안치된 것은 제외한다)등은 대석의 최돌출점에서 10미터 내지 20미터 이내의 구역 4. 첨성대는 하부 기단에서 50미터 내지 100미터이내의 구역 5. 석빙고는 벽면상부 지면에서 20미터 내지 100미터 이내의 구역 6. 석굴은 하부 기단에서 100미터 내지 500미터 이내의 구역 7. 마애불은 불상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30미터 내지 50미터 이내의 사방구역 8. 당간지주·석등·노주·석조 등은 각 물체를 중심으로 하여 반경 10미터 내지 20미터 이내의 사방구역 9. 석교는 교대 및 교각에서 10미터 내지 30미터 이내의 구역 10. 기타 국보·보물 또는 중요민속자료는 각각 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구 분	지 정 기 준
2. 사 적 의 보 호 구 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곽등은 성벽면 하부 기석에서 외향 및 내향 각각 20미터 내지 50미터 이내의 구역 2. 성·산성·성내전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벽면 하부 기석에서 외향 20미터 내지 50미터 이내의 구역 3. 제방은 성곽에 준한다. 4. 왕릉·고분묘 등은 봉토 하단에서 10미터 내지 1천미터 이내의 구역 5. 사지·사우지·전묘지·고궁 등은 담장 또는 경계선에서 5미터 내지 50미터 이내의 구역 6. 독조건축물·석조건축물 기타 시설물 등은 국보·보물의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에 의한다. 7. 기타 사적의 보호구역은 그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천연기념물 의 보 호 구 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물(축양동물에 한한다)·지질광물은 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식물은 입목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미터 이상 100미터 이내의 구역
4. 보 호 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상의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은 철책·석책·위장 기타 당해 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 2. 동종·석비·불상 등은 종각·비각·불각 3. 기타 문화재는 그 보관되어 있는 건물이나 보호시설
5. 보 호 물 이 있는 경우 의 보 호 구 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호물이 건축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추녀끝 또는 이에 준하는 부분 기타 최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외향 5미터 내지 50미터 이내의 구역 2. 보호물이 석책·철책·위장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부 기석에서 2미터 내지 20미터 이내의 구역

* 문화재관리국장은 자연적조건·인위적조건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 기타 사항은 문화재의 지정과 동일함.

2. 문화재관리의 개괄

가. 문화재관리의 의의

당해 문화재를 부동산문화재의 경우에는 원위치에, 동산문화재의 경우에는 완비된 시설에 원형 그대로 그 가치를 유지 보존하고 전통 기·예능을 발굴 보존 전승하는 일체의 행위라 할 수 있다.

나. 문화재관리의 기본방향

1) 문화재의 원형보존

모든 문화재는 원형대로 보존하여야 한다. 이는 문화재관리의 대명제이다. 문화재의 보존사업은 철저한 고증으로 원형을 좇아 그 본래의 모습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원형을 잃은 보존사업은 조상들의 정신과 슬기를 훼손하는 결과로 차라리 시행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만 못하다. 아무리 물질문명이 발달한다 해도 문화재의 원형이 변질되어서는 안된다.

2) 문화재보존사업의 신중

문화재보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졸속은 금물이다.

문화재보수·정비는 관계전문가의 충분한 연구·검토와 고도의 기술을 동원하여 치밀한 계획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예산의 절감이나 공사기간의 단축 등으로 조기에 목적을 달성하려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할 우려가 있다. 즉, 문화재보수·정비에는 무리한 공기를 고집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3) 무모한 발굴의 지양

문화유적의 무모한 발굴은 하지 않아야 한다.

문화유적의 발굴은 순수한 학술연구나 그 유적의 정비를 위한 자료를 얻는다거나 고속도로·댐건설 등 국가건설사업으로 그 유적의 현지보존이 더 이상 어려울 경우에 학술자료를 얻기 위하여 발굴하되 원상복구 및 유구의 보존을 조건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불요불급한 발굴로 그 유적 및 유구의 보존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된다.

4) 주위경관과 조화있는 문화재보존

문화재보존사업은 그 주위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흔히들 부동산문화재의 경우 그 구조물이나 시설물 자체만을 문화재로 생각하고 그 보존책도 이에 국한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산수가 좋은 곳에 사찰을 짓고 풍치가 뛰어난 곳에 정자나 누각을 세운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 반드시 그 문화재의 주위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조화를 무시한 정비사업으로 그 문화재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어서는 안된다.

다. 문화재관리의 주체

- 1) 문화재관리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이다.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보호하여야 한다.

- 2) 다음의 경우는 관리단체 또는 정부가 그 문화재를 직접 관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관리단체 지정관리

○ 화재·도난·훼손·멸실 등의 예방이나 그 보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안전 조치

라. 관리자 등의 정의

- 1) 소유자

당해 문화재의 소유권자를 말한다.

- 2) 관리자

소유자를 대리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보호하게 하기 위하여 소유자가 선임한 자로서 문화재관리국 등에 신고된 자를 말한다.

- 3) 관리단체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 문화재를 관리하도록 문화재관리국장이 지정한 지방자치단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지정절차

사유발생 → 의견조회(소유자 및 지정하고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 의견접수 → 지정결정 → 지정통지(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마. 소유자·관리자에 의한 관리

1) 일반관리

- 문화재의 품격과 주위환경이 조화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문화재의 관리 보호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확하게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불의의 도난·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순찰 및 점검을 철저히 하고 이상이 있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재관리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문화재보호법 및 관련법령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공개관람료를 받는 경우 그 징수·관리·사용에 공정을 기해야 한다.

2) 법칙 및 명령 등의 준수

- 문화재보호법 제20조의 허가사항, 제25조의 행정명령, 제27조의 신고 사항 등 문화재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이행사항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이 따른다.
-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를 매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화재관리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국가·지방 자치단체 또는 박물관에서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매도하여야 한다.

문화재는 개인의 수중에 들어가면 국가기관이나 박물관 등에서 보존되는 것보다 공개가 어렵게 되고, 공개가 되지 아니하는 문화재는 매장문화재와 같이 때문이다.

III. 우리고장의 문화재



북수문(화흥문)

여 백

III. 우리고장의 문화재

1. 국가지정 문화재

가. 창성사 진각국사 대각원조탑비(彰聖寺 眞覺國師 大覺圓照塔碑)

- 지정 번호 : 보물 제14호
- 소 유 : 국 가
- 위 치 : 팔달구 매항동 13-1
- 규 모 : 비신높이 1.51m, 비신폭 0.81m,
총높이 2.12m
- 재 질 : 비신 → 점판암, 대석·개석
→ 화강석
- 시 대 : 고려시대
- 지정년월일 : 1963. 1. 21



고려 우왕 12년(1386)년 명승인 진각국사(1307~1382)의 유적을 기리기 위하여 수원광교산 창성사 경내에 건립한 비였으나 창성사가 폐사되어 1965년에 매항동 현 위치로 옮겨 놓았다.

진각국사는 충렬왕 33년(1307년)에 출생하여 13세에 화엄반용사에 들어가 일비대사에게서 삭발하고 19세에 상품선에 오르고 금생, 덕천, 부인, 개태등 10여사(절)의 주지를 역임 하였다.

비문은 원나라에 간 사실을 기록하였으나 언제 일인지는 알수가 없다.

귀국후에는 치악에 은거하였고 낙산사에 있다가 공민왕 16년(1367) 치악에 돌아왔다.

진각국사는 당시 세상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은 명승으로서 왕은 「국사대화엄종사 선교도 총섭」이라는 칭호를 주고 1370년에는 인장법의(印章法衣)를 내렸다.

다음해 진각국사가 경천사에 있으면서 금강산 각처를 돌아다닐때 왕이 곁으로 와 줄것을 요청했으나 진각국사는 치악에 돌아갈 것을 애원하였다.

부석사에 들어간후 우왕 11년(1385) 소백산에서 그의 나이 76세, 입산 63년만에 운명하였다.

나. 팔달문(八達門)

- 지 정 번 호 : 보물 제402호
- 소 유 : 국 가
- 위 치 : 팔달구 팔달로 2가
- 규 모 : 문루-정면5칸, 측면 2칸,
2층 우진각 지붕
- 재 질 : 돌, 벽돌, 나무
- 시 대 : 조선시대 정조 19년(1795)
- 지정년월일 : 1964. 9. 3



성의 남문으로 정조 18년 2월 28일 진시부터 터담기 공사가 시작되어 8월 25일에 상량하고, 9월 15일에 문루가 완공되었다. 편액은 전 참판 조윤형(曹允亨)이 썼다. 장안문의 반대방향으로 남향하여 건립된 팔달문은 모든 규모나 형태가 장안문과 동일하다.

반원형 외성인 남옹성은 정조 19년 4월 21일에 착공하여 5월 12일 홍예가 이루어지고, 5월 20일에 완공되었다. 옹성의 중앙 전면에는 전돌의 홍예문을 내고 위에 옹성문루를 세웠다.

홍예에는 두 짝의 나무 대문을 달았는데, 철엽을 대고 큰 나무빗장을 걸도록 되어 있다. 홍예 상부에는 누조(漏槽) 8개를 설치했으며, 그 안팎으로 여장을 쌓아 여러 개의 총안을 내었다. 중층의 문루로 1, 2층은 모두 정면 5칸, 측면 2칸의 규모이며, 목조건물로서 화려하고 복잡한 다포식(多包式)의 공포를 얹거나 짜서 만들었고, 2층 구조로 꾸며 성 정문으로서의 위엄을 갖추었다. 건물 내부는 1, 2층으로 구분되어 그 사이에 마루를 깔았으며 2층 마루에 올라서면 성 앞을 멀리 조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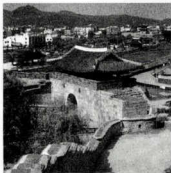
지붕은 우진각 지붕으로 각 처마가 한데 모여지는 형식으로 꾸며졌는데, 서울 남대문과 같은 형식이다. 옹성은 서울의 동대문에도 있지만, 석축의 동대문 옹성이 그 출입구를 한쪽 모서리에 낸 데 비하여, 이 남옹성은 팔달문의 출입문과 마주보이는 중앙위치에 둔 것이 특색이다. 옹성 홍예문 상부에는 오성지(五星池)라고 불리는 구멍이 5개 뚫린 일종의 물저장고를 설치하였다. 이것은 적이 성문을 불질러 파괴하려고 하는 공격에 대비, 이 구멍으로 물을 쏟아부어 성문을 보호하고 적의 공격을

저지시킴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며, 다른 성에서는 볼 수 없다.

성문의 좌우에는 적대(敵臺)가 하나씩 있는데, 이른바 남성적대(南城敵臺)이다. 이 2개의 적대는 정조 19년 2월 28일에 완공된 것인데, 높은 위치(臺) 가장자리에서 적을 좌우로 살피면서 공격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다. 적대의 외면 아래는 넓고, 위로 갈수록 넓이가 줄어들고 있는데, 현안(懸眼)을 2곳 설치하였다. 위 부분에는 전축으로 촌자 모양의 여장(女牆)을 둘러쳤고, 3면에는 여장이 있고, 총안을 뚫어 놓았다.

다. 화서문(華西門)

- 지정 번호 : 보물 제403호
- 소 유 : 국 가
- 위 치 : 장안구 장안동 25-2
- 규 모 : 문루-정면3칸, 측면 2칸,
단층 팔작지붕
- 재 질 : 돌, 벽돌, 나무
- 시 대 : 조선시대 정조 20년(1796)
- 지정년월일 : 1964. 9. 3



성의 서쪽문으로서 정조 19년 7월 21일 묘시에 터담기 공사에 착수하여 그해 11월 13일 홍예가 이루어졌으며 12월 11일 상량하고 이듬해인 정조 20년 1월 8일에 문루가 완공되었다. 편액은 좌의정 채제공이 썼다.

석축의 내외에 홍예를 설치했으며 두 대문은 철엽(鐵葉)으로 싸고 빗장을 설치하였다. 타구가 6개 있고 방안(方眼) 총혈도 6개가 있다.

여장안에 있는 누각은 6칸에 이익공집이다. 성벽의 일부가 휘어져 있는데 이것은 지형에 맞추어 성을 쌓은 결과이다. 수문청은 문안 남쪽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다. 형태상으로는 서울의 동대문과 비슷한 점이 많다.

용성 안쪽에 벽돌 누조 4개를 설치했으며 바깥쪽에 현안 3개를 뚫었고 여기에 여장 4첩을 설치하고 원근(遠近) 총안 14개를 설치하였다.

문루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단층건물이며 2익공 5량구조의 팔작지붕에 겹처마집이다.

라. 수원 “화성”(水原 華城)

- 지정 번호 : 사적 제3호
- 소 유 : 국 가
- 위 치 : 수원시 일원
- 규 모 : 둘레 5,743m, 길이 5,520m
- 시 설 물 : 41개소(당초 48개소)대문 4,
암문 4, 수문 1, 장대 2,
공심돈 2, 봉돈 1, 각루 4, 포루 10, 적대 2, 노대 2,
치성 8, 포사 1
- 시 대 : 조선시대 정조 20년(1796)
- 지정년월일 : 1963. 1. 21



원래의 수원은 지금보다 남쪽으로 약 8km 떨어진 화산 아래가 그 중심이었으나, 조선 정조가 동왕 13년(1789) 그의 생부인 장헌세자(숙청 사도세자)의 원침인 현릉원(후에 융릉으로 추증함)을 양주 배봉산에서 현 위치인 수원의 화산으로 옮기고, 그 아래 있던 읍치와 민가들을 수원 팔달산 아래로 집단이전 시킴으로써 현재의 수원 화성이 형성되었다. 정조는 부왕인 장헌세자에 대한 효심, 화성행궁의 보호, 정치적 목적등으로 1794년에 축성 공사를 시작, 2년 뒤인 1796년 준공하였다.

“화성”은 실학자인 유흥원과 정약용의 성설을 설계의 기본 지침으로 삼아, 좌의정 채제공이 성역을 주관하고 조심태등이 전력하여 이룩한 것으로 우리나라 성곽중에서는 가장 과학적으로 치밀하게 구조물을 배치하면서 우아하고 장엄한 면모를 갖추었다. 특히, 성곽의 축조에 석재와 벽돌을 혼합하여 사용한 것 그리고 화살과 창검을 방어하는 구조뿐만이 아니라 총포를 방어하는 근대적 성곽구조를 갖추고 있는 점, 또한 자재를 규격화 하고 거중기등의 기계장치를 활용한 점 등에서 우리나라 성곽사상 가장 특기할 일이다.

성곽의 전체 길이는 5.52km이며 동쪽으로 창룡문, 서쪽으로 화서문, 남쪽으로 팔달문, 북쪽으로 장안문등 4대문을 내고 암문 4개, 수문 2개, 적대 4개, 공심돈 3개, 봉돈 1개, 포루(砲樓) 5개, 장대 2개, 각루 4개, 포루(鋪樓) 5개 등의 다양한 구조물을 규모있게 배치하였다. 그리고 팔달산 아래에는 행궁을 지어 현릉원에 행차하는 임금이 일시 머물수 있도록 제반시설을 갖추었다. 그런데 약 200여년이 지나는 동안 성

곽이 퇴락하고 제반구조물이 무너지기도 하였으며, 특히 6.25동란을 통해 문루가 파괴되어 있었다가 1975년부터 5년간 복원하였다. 이 때에는 이미 시가지가 성터 일부를 점하고 있어서 팔달문에서 동남각루까지의 450m 구간과 도로로 끊어진 구간, 화성행궁은 시가지의 형편상 복원하지 못하였다.

마. 화령전(華寧殿)

- 지정 번호 : 사적 제115호
- 소 유 : 국 가
- 위 치 : 장안구 신평동 123
- 규 모 : 대지 3,732평
- 재 질 : 목조 기와
- 시 대 : 조선시대 순조 원년
- 지정년월일 : 1963. 1. 21



조선조 순조 원년(1801)에 그의 선왕인 정조에 대한 효심과 유덕을 받들기 위해서 건립한 것이며 전각의 이름을 화령전으로 하고 그 안에 정조의 진영을 봉안하여 해마다 제향을 드렸던 곳이다.

건물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이며 화강암으로 만든 기단에 세워졌다. 건물구조는 익공집으로 이 시대의 묘당 건물과 같이 간소한 수법으로 되었다. 정전의 「운한각」이란 편액의 글씨는 순조의 친필로 되어 있다.

경내에는 풍화당이란 건물이 있으며 이곳은 순조가 풍악을 즐기던 곳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오히려 순조가 선왕을 그리며 때를 보낸 자리가 아닌가 생각된다.

바. 파장동 이병원 가옥(芭長洞 李秉元 家屋)

- 지정 번호 : 중요민속자료 제123호
- 소 유 : 이 순 흥
- 위 치 : 장안구 파장동 383
- 재 질 : 목조 초가
- 시 대 : 조선시대(1888)



- 지정년월일 : 1984. 1. 10

안채 대청 상량문에 의하면 1888년(광서 14년 무자 3월 18일 유시)건축되었다.

집 뒤에는 알뜨막한 산이 둘러있고 앞에는 조그만 개울이 흐른다. 주변에 오래된 한옥이 많고 곳곳에 감나무가 심어져 있어 꽤 유서깊은 마을임을 알 수 있으나 근래 도시화로 말미암아 주변경관이 많이 파괴되었다.

집은 모두 초가집으로 지어졌는데 튼 ㅁ자형의 살림채와 바깥마당, 그 앞의 헛간채, 뒤란, 기타 광채들로 이루어졌다.

안채는 평범한 ㅁ자형집인데 보간격을 앞퇴를 둔 간반 크기로 했으며 건넌방은 상하방 2칸으로 만들어서 집머리를 ㄷ자로 약간 구부렸다. 대청은 2칸 너비이고 안방은 상하방이며 골방은 없다.

구조는 대청 중앙부분이 긴보 5량이고 구들부분은 1고주 5량이며 부엌은 평 4량으로 했다. 기둥은 네모이고 도리는 납도리이며 보는 양측면을 수직으로 반깎아 압키와를 한장 얹어두었으며 서까래는 아주 잘 다듬어져 있다. 평고대 위에는 빗물이 그 끝사이로 스며들지 않도록 흙을 발라두었고 지붕은 초가인데 두께는 대단히 두꺼워서 한자 반 가량이며 그 끝이 부른지붕으로 많이 숙였다. 안방 앞문은 가운데 정(井)자 살을 가진 불발기 쌍문으로 되었고 창은 용(用)자 창으로 꾸몄다. 민가로서는 전체적으로 법식에 따라 정성껏 지은집이다.

사랑채 역시 곱은자꼴로 안채를 엇비슷하게 막은 ㄴ자를 이룬다. 사랑방이 위아랫방으로 안채와 직각되게 배치되고 대문이 부엌을 향하게 계획되었다. 마당 앞에는 헛간, 외양간, 구들이 배치되었다. 구조는 맞걸이 3량 구조인데 다만 사랑방 부분만 1고주 5량으로 처리해서 구들 앞에 2칸 마루방을 시설하고 있다. 마루방은 보간격이 큰 반각으로서 특이한 점은 바깥마당 부분의 창에 모두 덧문을 달아서 판장문으로 막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19세기 말에 화적떼들의 피해가 너무 심했으므로 밖으로 통하는 모든 문은 판장문으로 보호한 때문이다. 이 집은 사랑방의 보간격이 커서 용마루가 마치 낙타 등 모양의 율동을 가졌다.

바깥마당 맞은편에는 5칸의 헛간채가 마련되었는데 건축년대는 20세기 중엽 정도로 추측된다. 살림채는 담장으로 둘러썬지만 바깥마당은 사방으로 트였고 헛간채 남쪽에 비쳐서 마당 안으로 진입하는 판석통로는 입구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인상적이다.

뒤란에는 우물 및 향나무, 감나무, 단풍나무등이 심어졌고 구석에 단간 초가인 광채가 자리해서 민가 뒤란 정원시설의 정취를 한껏 풍겨준다. 기타 살림채의 결채들은 최근에 건축된 것들이고 여기 광채만이 안채와 거의 같은 건축년대로 보인다.

사. 도당(都堂)굿

- 지 정 번 호 : 중요무형문화재 제98호
- 기능보유자 : 오수복(1924. 9. 23)
권선구 매교동 114-20
- 위 치 : 팔달구 영동 43-2(거북산당)
- 지정년월일 : 1990. 10. 10



수원지방의 도당굿은 당주(도당굿의 제주)가 도당굿 전날밤 개인적으로 집굿을 하는 당주굿으로 시작하여 당주와 무당, 잭이들이 당을 맞는 당맞이를 한다. 당맞이를 하고 나면 창부가 굿상 앞에서 갓을 쓰고 장구를 치며 하는 부정 청배와 무당이 치마저고리에 맨머리로 굿상앞에 서서 굿패들이 장송을 도는(혹은 당집을 도는) 돌돌이에 이어서 굿패들이 당앞에 도착하여 당 앞에 벼섬을 놓고 당할머니가 올라가 앉아서 삼현육각에 맞춰 거행하는 장문잡기와 산성한제를 올리기 위해 본굿 앞서 거행되는 부정굿과 시루도듬 그리고 당금아기의 신화를 서사무가로 풀어 내리는 제석굿과 도당할머니를 위하는 본향굿, 팽과리를 치며하는 터벌림과 창부가 반설음춤을 추는 손굿이 이어진다. 손굿이 끝나면 무당이 활옷에 빗갓을 쓰고 도살풀이 신장굿이라고 하는 중굿에 이어 뒷전으로 끝을 맺는다. 수원의 영동시장안에 있는 거북산당 도당굿은 200여년전부터 시장의 번영을 위해 지내던 도당굿으로 원래 18~20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세습무로 이어진 거북산당 도당굿은 200여년간 전해지고 있었으나 최근들어 세습무인 이용우옹의 작고후에 그 맥이 끊어져 있던 것을 도당굿을 세습한 오수복 여무로 인해 다시 재현하였다. 여무 오수복은 1990년 10월 10일에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제98호인 경기 도당굿의 기능 보유자로 인정 받았다.

2. 경기도 지정 문화재

가. 지지대비(遲遲臺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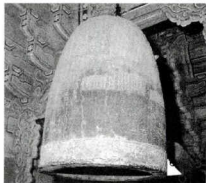
- 지정 번호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4호
- 소 유 : 국 가
- 위 치 : 장안구 파장동 산47-1
- 규 모 : 높이 1.5M, 폭 0.6M
- 재 질 : 화 강 석
- 시 대 : 조선시대 순조 7년(1807)
- 지정년월일 : 1972. 7. 3



정조가 생부 장헌세자의 원침(園寢)인 현릉원 전배를 마치고 환궁하는 길에 이 고개를 넘으면서 멀리서나마 현릉원이 있는 화산을 바라볼 수 있게 되므로 으레히 이곳에 행차를 멈추게 하고 현릉원쪽을 뒤돌아보며 눈물로 슬피울면서 이곳을 떠나기 아쉬워 하였기 때문에 정조의 행차가 느릿느릿 하였다하여 지지대라고 부르게 되었다. (느릿지 “지”자를 둘 겹쳐서 지음) 지지대비는 순조(純祖) 7년(1807)에 건립되었는데, 비는 비받침대위 몸통에 비면이 있고 지붕형 돌이 비몸위에 얹혀 있으며 높이 1.5m에, 폭이 0.6m이다. 지지대비는 홍문관 제학 서영보가 글을 짓고 윤사국(尹師國)이 글씨를 썼으며 숭정 기원후 180년 정묘 12월에 건립하였다고 건립년월일을 기록하고 있다.

나. 팔달문 동종(八達門 銅鐘)

- 지정 번호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69호
- 소 유 : 국 가
- 위 치 : 팔달구 팔달로2가
- 규 모 : 높이 123m, 지름 75cm
- 재 료 : 청 동
- 시 대 : 조선시대 숙종 13년(1687)
- 지정년월일 : 1976. 8. 27



수원화성 축조와 동시에 건조된 성의 남쪽문인 팔달문 2층루상에 달려 있는 이 종은 종꼭지의 종결이는 음통이 없는 용유 뿐이고 상대에는 내부에 글씨를 넣은 수십 개의 복선단권문을 두 줄로 나란히 돌렸으며 종어깨(鍾肩)의 4곳에는 보상화문의 방형 유랑과 유랑 사이에는 역시 4구의 보살비천선이 배치되었다. 또 종몸통에는 이 종을 주조한 장소와 년대, 유래, 주조자들의 명문이 주자 혹은 각자되어 있으며 종아래에는 보상당초화문을 표면위에 돌렸는데 고려의 전형적인 양식을 계승한 조선 종으로서의 형식은 둔탁하고 양식과 기법은 우아 섬세치 못하다고 생각되나 역사적 가치가 있다.

이 종에 대한 전설과 유래 그리고 문헌, 기타의 사료가 없어 연혁은 알 수 없으나 다만, 종몸통에 「고려국도읍 태강… 경기도 수원부 수동면 무봉산 만의사…」라 표면 위에 나타낸 명문과 당시의 만의사 주지 도화승 그리고 종 주조시 시주자 약 100여 명의 명단이 새겨진 것을 볼 때 이 종은 고려의 도읍지였던 현 개성에서 1080년(고려 11대 문종 34년) 2월에 주조된 종을 1687년(조선조 제19대 숙종 13년) 3월에 당시의 만의사 주지 도화승이 만의사의 불교의식에 사용코자 다시 만든 것으로 추측되나 수원시의 팔달문까지 어떤 연유로 오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다. 봉녕사 석조삼존불(奉寧寺 石造三尊佛)

- 지정 번호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51호
- 소 유 : 봉녕사 주지
- 위 치 : 팔달구 우만동
- 크 기 : 높이 1.6~1.64M
- 재 질 : 화강암
- 시 대 : 고려시대 중기
- 지정년월일 : 1994. 10. 29



대웅전 뒷편 언덕에 건물을 지으려고 터를 닦는 도중, 출토되었다는 3구의 석불이 노천에 봉안되어 있다.

현재 이 삼존은 각기 원형의 연화석 위에 안치하였는데 이 세개의 연화대석도 함께 출토된 것이라 한다.

3존의 석상과 연화석들은 모두 화강암으로 조성하였는데 사질이 많은 삼존 중 2존은 입상이고 한 존은 좌상인데 아마도 이 좌상을 본존으로 모시고 입상이 좌·우 협시불이었던 것 같으며, 연화대석 두 개는 이 협시들의 상을 안치하는 대였던 것 같다. 좌상은 소발로 두부에 파손이 있고, 상호는 원만한 편이나 입술은 희미한 편이다. 양쪽 귀는 짧은 편이며, 목은 굵다. 법의는 두 어깨를 모두가린 통견이며 왼손을 가슴에, 오른손은 무릎밑으로 내리고 있다.

2구의 입상은 거의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소발이고 상호는 원만하나 각부는 마멸이 심하다. 서있는 자세인 것 같은데 애석하게 밑부분이 파손되어 잘 알수 없고 원추형의 받침대에 연화문이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다.

각부의 형식과 조각수법으로 보아 이 석불들은 고려 중엽의 조성으로 보아도 무리는 아닐 것 같다.

라. 봉녕사 불화(奉寧寺 佛畵)

- 지 정 번 호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52호
- 소 유 : 봉녕사 주지
- 위 치 : 팔달구 우만동 봉녕사 약사전
- 재 질 : 건본 및 견직 채색
- 수 량 : 2폭
- 시 대 : 근 대
- 지정년월일 : 1994. 10. 29



○ 신중탱화

- 규 격 : 178×168cm
- 재 료 : 건본 채색

위쪽에는 제석 대범의 천인상과 그 권속을 도설하고 있으며 아래쪽에는 중앙에 위태천신을 중심으로 8부신장과 용왕 금강상등을 배설하고 있다.

각 신중상의 표현기법이 양호할 뿐 아니라 각 신중의 배열의 조화, 모든 채색의 조화등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수한 불화의 양식을 지닌 그림이라 할 수 있다.

이 불화는 1891년 김부(화사)광조에 의하여 제작되었으며 박신주에 의하여 제작되고 도감 송주의 소임을 맡은 비구승이 참여하였다.

○ 현 황 정

- 년 대 : 1878년
- 규 격 : 131×104cm
- 재 료 : 견직 채색

이 현왕탱화는 영산회상도 칠성도등과 같은 시기에 같은 작가 또는 같은 조성배경을 갖고 조성되어진 것이다. 중앙의 현황을 중심으로 좌우에 관관 녹사등을 도설하여 구도상의 조화와 채색법의 특징이 신중탱화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한편 『현왕정화』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불화의 일종이다.

마. 노송지대(老松地帶)

- 지 정 번 호 : 경기도기념물 제19호
- 소 유 : 국 가
- 위 치 : 장안구 파장동, 이목동 일원
- 수 량 : 52주
- 수 종 : 소 나 무
- 시 대 : 조선시대 정조
- 지정년월일 : 1973. 7. 10



이 노송지대는 지지대비가 위치한 지지대 고개 정상으로부터 구 경수간 국도를 따라 도로 변에 노송이 성장하는 약 5km 구간이다. 정조가 생부 장헌세자의 원침인 현릉원의 식목관에게 내탕금 1,000량을 하사하여 이곳에 소나무 500주와 능수버들 40주를 식수하게 하였다고 한다. 현재는 노송 52주가 보존되고 있다. 낙락장송이 울창한 이 자연경관은 많은 역사를 함축하여 고색을 더해 주는 듯한 곳이다.

바. 김준용장군 전승지 및 비(金俊龍 將軍 戰勝地 및 碑)

- 지 정 번 호 : 경기도기념물 제38호
- 소 유 : 국 가
- 위 치 : 장안구 상광교동 산41
- 규 모 : 가로 40cm, 세로 135cm
- 재 질 : 자연암벽
- 시 대 : 전승지→조선시대 인조, 비→조선시대 정조18년



광교산 중턱에는 「전라병마절도사 김준용의 전승지와 충양공 김준용 전승지」란 명문좌우에 「병자 청란공제호남병, 근왕지차살청삼대장」이라 음각한 전승비가 있다.

비는 자연암벽에 음각한 것인데 크기는 가로 40cm, 세로 135cm이다.

김준용 장군의 휘는 준용이요, 자는 수부이다. 1608년(선조 41)에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이 되었고 관무재 장원으로 훈련주부에 오르는 등 많은 관직을 거쳐 병자호란이 일어나던 인조 14년(1636) 전라도 병마절도사에 머물고 있었다. 난이 일어나자 장군은 휘하의 군사를 거느리고 북상하여 이곳 광교산에 진을 치고 청군과 싸워 청태종의 사위인 양고리를 비롯한 청의 대장 셋과 수많은 군졸을 사살하는 큰 승리를 거두었다. 정조 18년(1794) 수원 “화성” 축성을 총리하던 영의정 채제공이 이러한 장군의 승첩사실을 전해듣고 전승지인 이 광교산 자연암벽에 전승을 기념하는 글을 새기도록 하였다고 한다.

사. 심온 선생 묘(沈溫 先生 墓)

- 지 정 번 호 : 경기도기념물 제53호
- 소 유 : 청송심씨 대종회
- 위 치 : 팔달구 이의동 13-10
- 규 모 : 묘1기
- 시 대 : 조선시대 세종 원년(1418)
- 지정년월일 : 1979. 9. 10



묘역은 2단으로 제1단에는 봉분앞 백대리석에 안평대군 글씨로 된 묘비와 상석이 있고, 제2단에는 정방형 운족석등과 좌우에 문인석 한쌍이 있다. 묘비는 높이 142cm, 폭 46.5cm, 두께 7.5cm로 되어 있다.

묘역에서 약 100m 떨어진 좌측 마을 입구에 오석으로된 신도비가 있다.

심온(沈溫)선생은 조선조 초기의 문신으로 자는 중옥, 본관은 청송이며, 세종의 부원군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독서하면 잊지 않았으며 문필이 뛰어나고 인물이 준결하여 골격이 장대하였고 성품은 온화하였으며 위엄이 있었다.

고려말 12세에 진사가 되고 그 후 문과에 급제하여 조선개국 후 병조, 공조의 의랑, 대호군, 상호군, 검 판통예문사를 거쳐 풍해도관찰사, 대사헌, 호조판서, 판한성부

윤, 좌군도총제, 이조판서를 역임하고 1418년 태종의 선위로 세종이 즉위하자 영의정에 올랐고 사은사로 명나라에 갔을 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수원에서 사사(賜死)되었으나, 사후에 충성심과 진실이 밝혀져 1451년 문종은 선생에게 안효(安孝)라는 시호를 내렸다.

아. 화성행궁지(華城行宮址)

- 지 정 번 호 : 경기도기념물 제65호
- 소 유 : 국 가
- 위 치 : 장안구 신동동 248-1외 1
- 규 모 : 14,376㎡
- 재 질 : 목조와즙(낙남헌)
- 시 대 : 조선시대 정조 20년(1796)



화성행궁지는 조선시대 화성행궁 자리로 수원의 행정관서인 동시에 왕이 내려와 임시로 거처하는 별궁이었다. 조선조 제22대 정조대왕(1776~1800)은 억울하게 희생된 아버지 장헌세자(사도세자)의 묘인 현릉원(兪릉)을 참배하고 이 곳 행궁에 머물면서 어머니 혜경궁홍씨와 회갑잔치를 열기도 하고, 화성·판주·시흥 등 4곳의 선비들에게 과거를 치르게 하기도 하였으며, 노인들에게 경로잔치를 베풀기도 하였다.

화성행궁은 정조 20년(1796)에 완성된 것으로 행궁의 정전인 봉수당, 장락당, 유여택등 521칸의 대규모 건물로 조선시대의 다른 행궁보다 월등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

효행의 상징인 화성행궁은 정조대왕과 정약용등 실학자들의 지혜와 노력의 결실로, 수원화성 축성과 더불어 역사적으로 깊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 1910년을 전후하여 일제에 의해서 이 곳에 병원을 시작으로 학교·경찰서 등을 건립하면서 인위적으로 파괴되어 현재에는 낙남헌만이 유일하게 남아있다.

낙남헌은 봉수당 북쪽에 있던 행궁건물의 하나로 목조와즙에 초익공양식의 팔작집이다. 봉수당 좌측행각에 붙어있던 부분은 없어졌고 벽체 및 내부는 개조되었다.

화성행궁은 1994년부터 복원공사를 시작하여 2002년 복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자. 팔달산 지석묘군(八達山 支石墓群)

- 지 정 번 호 : 경기도기념물 제125호
- 소 유 : 국 가
- 위 치 : 권선구 교동 산 3-1
- 수 량 : 4기
- 시 대 : 청 동 기
- 지정년월일 : 1991. 4. 12



지석묘는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형식이다. 이 지석묘군은 받침돌이 있는 남방식 지석묘로서 4기의 지석묘가 있다.

이 중 2기의 지석묘는 산의 완경사 구릉에 위치하며, 2기는 50m 떨어진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개석의 장축방향은 산의 정상에 대해 가로로 향한 남북방향이며 대체로 동·서 길이가 1.5m~2m, 남북이 1.5m~2m, 두께가 0.5m~0.6m이다. 개석의 받침은 동·서·남에는 받침돌을 받쳤고 북쪽은 구릉의 경사면을 이용하였다. 3호 지석묘는 하부구조가 노출되어 있으며 개석은 옆으로 밀려나 땅에 일부가 묻혀있다.

이와같은 지석묘군은 경기지역에서는 찾아 보기 힘든 것으로 한강유역의 선사문화를 규명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차. 수원향교(水原鄕校)

- 지 정 번 호 : 경기도문화재 자료 제1호
- 소 유 : 국 가
- 위 치 : 권선구 교동 43
- 규 모 : 1곽
- 재 료 : 목 조
- 시 대 : 조선시대 후기
- 지정년월일 : 1983. 9. 19



조선조 정조 13년(1789년)까지 화성군 봉담면 와우리에 있던 것을 정조대왕이 장현세자(사도세자)의 묘(원침)을 양주 배봉산에서 현재의 화산으로 이장할때 현위치

인 수원시 교동 43번지로 옮겼다.

향교는 공자·맹자를 비롯한 오성위의 위패를 봉안한 대성전과 선현들의 위패를 봉안한 동·서무, 유생들이 공부하는 명륜당, 유생들이 기숙하는 동·서재가 있는데 동재에는 양반계급을 서재에는 그 이하 계급을 수용하였다.

대성전은 맞배지붕에 한식 골기와의 형태이며 좌·우에 방풍판이 있고 정면 5칸, 측면 3칸의 건물로 장대석으로 축대를 쌓았고 좌·우 중앙에 계단이 있으며 용마루에 귀면이 있는 건물로 건평 150.48㎡(45.6평)이다.

동무, 서무는 맞배지붕에 한식 골기와의 형태이며 좌·우에 방풍판이 있고 정면 3칸, 측면 2칸의 건물이다.

명륜당은 팔작지붕에 한식 골기와 형태의 정면 5칸, 측면 2칸의 건물로 장대석으로 축대를 쌓았으며 건평이 57.75㎡(17.5평)이다.

그밖에 향교앞에 하마비가 있고 나무로 만든 홍살문과 외삼문, 내삼문등이 있다.

3. 향토유적

가. 향미정(杭眉亭)

- 지 정 번 호 : 향토유적 제1호
- 소 유 : 국 가
- 위 치 : 권선구 서둔동 251(농촌진흥청내)
- 규 모 : 43.5㎡(13.2평)
- 재 질 : 목조기와
- 시 대 : 조선시대 순조 31년(1831)
- 지정년월일 : 1986. 4. 8



조선조 정조 23년에 농업용 저수지로 축조한 것이 축만제인데 이 인공호수는 당시에 축조된 동서남북의 호수중 하나로서 서쪽에 위치해 있다하여 흔히 서호로 불려왔다. 서호는 옛부터 낙조와 잉어가 유명했고 특히 잉어는 약용으로 쓰여 궁중에 진상되었다.

이와 함께 서호의 경관과 풍치를 아름답고 돋보이게 하는 명물이 바로 향미정이며 이 정자는 순조 31년 당시의 화성유수 박기수공이 건립하였는데 석양에 비치는 서호 주위에 여기서 그림자가 마치 미인의 눈썹과 같다는데서 향미정이라 하였으며 중국의 절강성 항주에도 서호가 있고 그 호변에 향미정이라는 정자가 있다고 한다. 구조는 ㄴ자 평면에 사각형 단면의 도리로 꾸민 집으로 화강암의 2단 기단을 쌓은 다음 주초석 위에 각주를 세웠고 연등천정이다.

중앙은 5량, 양끝은 3량에 흠처마 목조건물로 건평 43.5㎡(13.2평)이다.

나. 거북산당(거북山堂)

- 지 정 번 호 : 향토유적 제2호
- 소 유 : 임 북 레
- 위 치 : 팔달구 영동 43-2
- 규 모 : 10.5㎡



- 재 질 : 목조기와
- 시 대 : 1790년경
- 지정년월일 : 1986. 4. 8

이 지역 영동시장의 변영과 상인들의 평안을 위하여 1790년경 창건되었던 도당인데 그뒤 인계동에 거주하는 이씨성을 가진 할머니가 자신의 재산과 경찰서, 동사무소 등 각 기관의 협조를 얻어 지금의 건물로 중수했다고 한다.

건물은 맞배지붕에 한식 골기와를 얹었는데 그 규모는 정면 4.19m, 측면 2.5m이다.

당집 내부에는 제단과 거북산당 도당할아버지와 할머니, 염라대왕의 채색벽화가 있다.

지금도 음력 7월 7석과 10월 7일이면 영동시장 변영회가 중심이 되어 시장의 수호신인 도당할아버지와 할머니께 제사를 올린다.

※도당굿 기능 보유자 : 오수복(여, 1923년생)

—중요무형문화재 제98호('90. 10. 10)

다. 이재원 선생 불망비(李載元 先生 不 忘 碑)

- 지 정 번 호 : 향토유적 제3호
- 소 유 : 사유(관리자 손현석)
- 위 치 : 장안구 송죽동 409
- 규 모 : 비신높이 1.51m, 폭 0.6m, 두께 28cm
- 시 대 : 조선시대 고종 6년(1871년)
- 지정년월일 : 1986. 4. 8



이재원(1831~1891)선생은 조선말의 문신으로 자는 순팔, 본관은 진주, 흥원군 정응의 아들로 태어나 흥녕군 창용에게 입양하였다.

철종 4년(1853) 정시무과에 병과로 급제, 대원군이 집권하자 중용되어 6조의 판서를 지냈고, 고종 5년(1868) 경복궁 중건때는 종정경으로 영건도감제조를 겸임했다.

고종 21년(1884) 기구 개편 때 군무사 당상경리사가 되어 군무를 장악했고 갑신정변 때는 잠시 영의정을, 심순택 내각에서는 이조판서를 지냈다. 완림군에 추봉되고 시호는 효정이다.

선생은 고종 6년(1869) 2월에서 1871년 1월까지 수원유수로 재임했는데, 이 불망비는 그가 이조판서로 영전된 후인 그해 7월에 건립되었다.

비는 본래 팔작지붕형의 옥개가 갖추어져 있었으나 멸실되었고, 현재는 장방형의 비좌위에 비신만 남아있다. 비신은 상·하 두 부분에 각기 옆으로 금이 나있다.

라. 창성사지(彰聖寺址)

- 지 정 번 호 : 향토유적 제4호
- 소 유 : 사 유
- 위 치 : 장안구 상광교동 산41
- 규 모 : 면적 약 500평
- 시 대 : 고려시대
- 지정년월일 : 1986. 4. 8



창성사지에는 고려말의 국사·화엄종사였던 명승인 진각국사(1305~1382)의 사리탑과 함께 건립된 대각원조탑비(보물 제14호)가 얼마전까지 경내에 있었는데, 이 탑비는 고려 우왕 12년(1386) 진각국사의 덕과 행적을 추모하기 위해 세웠던 것이다.

현재 이 절터에는 건물의 기단석·주초석·옥개석·와편등이 산재해 있고, 석축으로 된 우물 터도 남아있다. 일부 현존하고 있는 2단의 기단석은 화강암과 잡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층기단은 높이가 2m 정도이나 붕괴되어 약 100평의 사지(절터)를 이루고 있다.

하층기단은 약 4m 높이에 윗부분의 폭 5m, 길이 약 50cm가 남아있다. 서북쪽의 대웅전터에는 기단부 장대석 10여개와 주초석 10여개가 잔존하고 있으며, 탑 기단 갑석·탑재편·옥개석 등이 남아있다.

전체 사지(절터)는 약 1,650㎡(약 500평)로 추정되는데, 대부분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마. 미륵당(彌勒堂)

- 지 정 번 호 : 향토유적 제5호
- 소 유 : 사 유
- 위 치 : 장안구 파장동 23-11
- 규 모 : 9.6㎡
- 재 질 : 벽돌 기와
- 지정년월일 : 1986. 4. 8



미륵당은 본래 조선 중기에 건조된 건물로 현재는 법화당이라 불려지고 있다. 이곳에는 속칭 미륵부처라고 일컬어지는 석불입상이 안치되어 동민들의 예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설에 의하면 마을의 평안을 빌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이 마을 수호신이라고도 하며 미륵동이라고 하는 옛부터의 마을 이름도 이 미륵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미륵불은 화강암 1석으로 조성되어 있고 소발의 두정에 육계가 있으며 타원형의 보개를 얹어 놓았다. 상호는 긴편이나 원만하고 귀는 크고 길어 어깨에까지 늘어졌으며 각 부가 채색되어 있다. 현재 동체는 전부 노출되지 않고 지하에 일부가 묻혀 있는데, 높이는 249cm, 가슴폭은 107cm, 두부 높이는 114cm이다.

미륵당은 맞배지붕에 한식 골기와를 얹은 단칸 벽돌집으로 정·측면 각기 3.1m의 건물이다. 이 건물은 1959년부터 그 이듬해에 걸쳐 보수·중축하고 법화당이라 개칭 지금에 이르렀다고 한다.

바. 정유 선생 묘(鄭裕 先生 墓)

- 지 정 번 호 : 향토유적 제6호
- 소 유 : 사 유
- 위 치 : 팔달구 하동 408-1
- 시 대 : 조선시대 명종 21년
- 지정년월일 : 1990. 1. 4



정유(1503~1566)선생은 조선 중기 중종·명종대의 문신으로서 자는 공탁, 호는 양진당, 보진당, 본관은 온양, 통진현감을 지낸 수강의 아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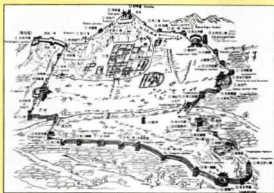
중종 23년(1528)에 진사, 중종 32년에 문과, 이듬해 탁영시에 급제한 후 승문원, 성균관 전적등을 거쳐, 호조좌랑, 사헌부 지평, 성균관 직강등을 역임하고,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온 뒤 한성서윤, 사헌부장령 등을 거쳐 의정부 검상으로 천거되었다. 명종1년(1546) 사간원 사간, 명종 6년 홍문관 교리가 되어 강원도 암행어사로 나갔다. 그후 직제학, 부제학을 지내고 명종 9년 대사간에 승진, 동지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듬해 사헌부 대사헌으로 승진하였으며 한성부 우윤으로 전보되었다가 황해도 관찰사를 마지막으로 병을 얻어 관직에서 물러났으며, 명종 21년 10월 64세를 일기로 별세하였다. 좌찬성겸 판의금부사로 추증되었다.

선생은 오랫동안 왕에게 학문을 강론했는데 사생활은 검소 청빈하였으며 가정에서는 효우로 일관하였다. 당시 정권은 외척의 기세가 실로 당당하여 감히 이를 말하는 자가 없었으나, 선생은 그 방자와 횡포를 마땅히 제재할 것을 임금께 직언하는데 서슴치 않았다.

묘는 정부인 청주한씨와 쌍분을 이루었는데 중앙에는 묘비와 상석 각1기, 그 좌우에는 문인석과 망주석 2기가 각각 배치되어 있다.

비 앞면에는 「가선대부 사헌부 대사헌 정공 유지묘」라 되어 있고 뒷면에는 유성룡이 찬하고 김응남의 전(篆)자로 쓴 편액과 명필 한호의 글씨로 이루어진 선생의 행장이 음각되어 있다.

IV. 수 원 “화 성”



수원 “화성전도”(축성당시의 성의모습)

여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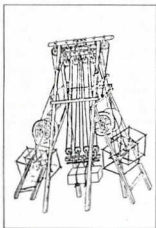
Ⅳ. 수 원 “화 성”

1. 연 혁

- 수원화성은 조선 제22대 왕인 정조때, 선왕인 영조(제21대왕)의 둘째 왕자로 세자에 책봉되었으나 당쟁에 휘말려 왕위에 오르지도 못하고 뒤주 속에서 생을 마감한 아버지 사도세자(후에 장조로 추존)에 대한 효심의 발로에서 축조한 성으로, “수원성”으로 불리었다.
- 정조는 왕위에 오른 후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침을 양주 배봉산에서 당시 조선 최대의 명당인 수원의 화산으로 천봉(현재의 “음능”)하고 화산 근처에 아버지의 명복을 비는 기복사(祈福寺)로 용주사를 지어 부모은중경 등을 하사하였으며, 화산부근에 있던 읍치를 수원의 팔달산 아래 지금의 위치로 옮겼다.
- 수원화성은 아버지의 묘소인 “현릉원”을 지키기 위한 정조의 효심으로 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쟁에 의한 당파정치의 근절과 강력한 왕도정치의 실현을 위한 원대한 정치적 포부가 담긴 정치구상의 중심지로 지어진 것이며, 도성 남쪽의 국방요새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 수원화성은 규장각 문신 정약용이 동서양의 기술을 참고하여 만든 “성화주략”(1793년)을 지침서로 하여, 재상을 지낸 영종추부사 채제공의 총괄 아래 조신태의 지휘로 1794년 1월 착공에 들어가 1796년 9월에 완공되었다.



성곽축조모습



거중기

○ 수원화성은 중국, 일본과는 달리 평산성의 형태로 정치상업적 기능과 군사적 기능을 함께 갖추도록 설계되었고, 십자로의 건설등 대도시로서의 도시기반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도시계획도시를 형성하게 되었다.

○ 축성시에 거중기, 녹로등 신기계를 특수하게 고안·사용하여 장대한 석재 등을 옮기며 쌓는데 이용하였고, 축성당시의 성곽에 대한 설계도면 및 축성공법, 소요물자, 참여인원의 이름, 작업일 등을 상세히 기록한 “화성성역의궤”라는 완벽한 공사보고서를 만들어 후세에 전하고 있다.

○ 당시 수원화성의 성역은 차원높은 도시 건설사업으로 인공과 자연의 조화, 기능과 외관의 결미, 비상시와 평상시의 상보적 결합, 외래문화와 전통문화의 융합등 18C 조선조 문화 중흥기의 역량이 총결집된 걸작품이라 할 수 있으며 한국민족문화의 위대한 금자탑중 하나이다.

※ 4. 화성성역의궤 해설 참조

○ 수원화성 축성과 함께 화성행궁, 중포사, 내포사, 사직단등 많은 시설물을 건립하였으나 전란으로 소멸되고 현재 화성행궁의 일부인 낙남헌만이 남아있다.

○ 수원화성은 축조 이후 일제의 강점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일부가 파손·소실되었으나 1975~1979년까지 “화성성역의궤”에 의거 대부분 원상태로 보수·복원하여 총 48개의 시설물중 41개의 시설물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성곽시설물 현황

가. 성곽(城郭)

- 수원화성의 둘레는 5,743.656m, 면적은 130ha로 지형은 동쪽은 평지를 이루고 있으며 서쪽은 팔달산에 걸쳐있다. 성은 문루 4, 수문 2, 공심돈 3, 장대 2, 노대 2, 포(砲)루 5, 포(舖)루 5, 각루 4, 암문 5, 봉돈 1, 적대 4, 치성 9, 은구 2등 총 48개의 시설물로 일곽을 이루고 있으나 이중 수해와 전란으로 인해 소멸된 7개 시설물(수문 1, 공심돈 1, 암문 1, 적대 2, 은구 2)을 제외한 41개 시설물이 현존하고 있다.



성곽시설물

- 200년전 축조된 이 성은 가장 근대적인 규모와 실용성 기능성 등을 갖추고 있으며 종래의 성제보다 뛰어나게 발전한 것은 임진(1592년), 병자(1636년) 양대전란의 경험과 대포 등의 발달로 기존 성의 미비점을 보완했기 때문이며 성의 형태뿐만 아니라 초루, 곡성, 돈대, 치성의 적절한 안배로 실전에 있어서 근접하는 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시설이라 할 수 있다.

- 또한 4대문에는 오성지를 두고 새로 고안한 누조를 설치하여 적의 화공에 대비하고 적대와 공심돈등에는 현안을 두어 근접하는 적을 효과적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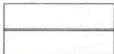


장안문 오성지

- 성곽은 중국, 일본등지와는 달리 자연지세를 이용하여 성의 바깥쪽만 벽을 쌓고 안쪽에는 흙으로 돋우어 매우는 외협내탁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또한 토성과 석성의 취약점을 보완하여 전석교축으로 견고성과 디자인의 용이성을 최대한



여담
미석
성벽



살림으로써, 축성사에 최대의 수작이라 할 수 있다.

- 성체의 높이는 지형에 따라 4~6m내외로 평지부분이 산지부분보다 높게 쌓았다. 그 위에 평균 12cm정도의 미석을 10~15cm 돌출되게 쌓고 또 그 위에 높이 1.2m내외의 여장을 돌 또는 벽돌로 쌓았으며 여장 1타에는 중앙에 근총안을, 좌우에 원총안을 두었다.
- 석성쌓기는 네모진 석재의 뒷길이를 상당히 길게하고, 표면주위는 작게 다듬어 뒤끝이 커지는 것을 상하로 교묘히 물려 돌 한개 한개가 토압에 물려나지 않게 견고하게 쌓았다.

나. 성문(城門)

- 수원화성에는 동, 서, 남, 북에 성문이 있으며 팔달문(남문), 장안문(북문), 창룡문(동문), 화서문(서문)이 있다. 이중 팔달문과 장안문은 수원성의 관통대로인 남과 북을 연결하여 주는 대표적인 대문으로 두 건물의 규모와 형태는 거의 같다.

1) 팔달문(보물 제402호)

- 팔달문은 수원화성의 남쪽문으로 보물 제402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 1칸의 홍예(아치)문이 있는 석축(石築)위에 2층의 목조 누각 건물을 세웠으며 전면에는 반원형으로 축조된 옹성이 있고 문루 좌우에는 적대가 각각 하나씩 있다.
- 성문의 홍예 높이는 외측이 5.84m, 내측이 6.10m이며 홍예의 폭은 외측이 5m, 내측이 5.66m이다.



팔달문

- 문루는 정면 5칸, 측면 2칸의 2층 건물로 1층 면적은 161.76㎡, 2층 면적은 110.87㎡이며 건축양식은 다포식(多包式)이고 지붕의 형태는 우진각지붕으로하여 격식과 위용을 갖추고 있다.
- 성 외부(전면)에는 평면이 반원형으로 벽돌로 쌓은 융성이 있으며 전면 중앙부에는 1칸의 홍예문을, 그 상부에는 오성지라 부르는 다섯 개의 구멍을 두고 외부의 아래쪽으로 경사지게 만들어, 적의 화공시 물을 부어 성문을 보호하고 적의 공격을 막도록 한 시설을 두었다. 그 윗부분에는 정면 1칸, 측면 1칸의 단층 문루를 세웠는데 그 건축면적은 15.78㎡이다.

2) 장안문

- 수원화성의 북쪽문으로 문루는 1950년 한국전쟁 때 소실(燒失)되어 1975년 수원화성의 설계도서인 화성성역의궤에 의거하여 복원되었다.
- 그 구조와 규모 및 형태 등은 남문인 팔달문과 거의 같다.



장안문

3) 화서문(보물 제403호)

- 수원화성의 서쪽문으로서 보물 제403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1칸의 홍예문이 있는 석축 위에 단층의 문루를 세웠으며 외부로는 반원형 평면에 벽돌로 쌓은 융성을 돌리며 남쪽으로 출입구를 내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문루는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건축면적은 60.83㎡이고, 건축양식은 이익공식(二翼工式), 지붕은 팔작지붕으로 되었다.



화서문

- 기둥사이에는 모두 개방되었으나 주위 석축 상면에 쌓은 여장에 의하여 4면이 엄호되었다.



청룡문

4) 청룡문(蒼龍門)

- 수원화성의 동쪽문으로 1칸의 홍예문이 있는 석축 위에 단층의 문루를 세웠으며 외부(전면)로는 평면이 반원형으로 된 벽돌로 쌓은 웅성이 있다. 문루는 1950년 한국전쟁때 소실되어 1976년에 화성성역의궤에 의하여 복원한 것이며 문루의 세부적인 구조와 규모 및 형태등은 화서문과 거의 같다.

다. 암문(暗門)

- 평시에는 가축, 수레, 양식 등을 들이기 위한 통로이며 전시에는 적에게 노출되지 않고 몰래 빠져나가 구원요청, 배후공격, 연락 및 군수품 조달등을 하도록 한 비밀통로이다.
- 암문은 일반적으로 성곽 위에 건물을 세우지 않으며 성벽 하부에 소규모로 된 출입구를 두는데 대개 성곽의 굴곡된 부분이나 후미진 곳 또는 수목이 가려서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곳 등에 위치하며 수원화성에는 5개소의 암문이 있었다. 현재 4개소가 남아있다.



북암문



동암문

1) 북암문(北暗門)

- 방화수류정 남측의 약간 골짜기 진 곳에 있으며 성벽이 좌우로 휘어 성벽에 접속되므로 성밖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
- 성벽에 붙여 벽돌로 벽을 쌓고 성외측으로는 높이 2.22m, 폭 1.12m의 홍예문을 두었다.

2) 동암문(東暗門)

- 동북포루(東北舖樓)와 동장대(東將臺)의 중간에 위치하며 성벽이 안으로 굽어 들어간 위치에 벽

돌로 쌓았다.

- 성의측으로는 높이 2.78m, 폭 1.86m의 홍예문을 두었다.

3) 서암문(西暗門)

- 서장대(西將臺) 남측의 팔달산록(八達山麓)에 위치하며 성안쪽의 지반은 높고 바깥쪽 지역은 낮아, 성안에서 계단을 통해 내려가 홍예문을 통하여 성밖으로 나가게 된다. 이곳도 암문을 옆으로 틀어 앉히고 있어서 성곽에 접근하기 전에는 암문의 위치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서암문

4) 서남암문(西南暗門)

- 서남 각루(西南角樓)로 나가는 암문으로서 유일하게 암문 위에 포사(舖舍)를 세웠다.



서남암문

라. 수문(水門)

- 수원화성에는 남쪽으로 흐르는 개천이 성안을 관통하고 있어 이를 건널수 있는 북수문(北水門)과 남수문(南水門)이 있었다. 현재는 북수문(北水門)만이 남아있다.

1) 북수문(北水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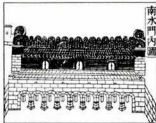
- 수원화성을 관통하여 흐르는 하천 북쪽의 위치에 있는 수문으로 일명 화홍문(華虹門)이라 한다.
- 수문의 홍예(虹霓)는 모두 7칸으로, 중앙부의 1칸은 높이 2.57m, 폭 2.79m이며 나머지 좌우의 6칸은 높이 2.42m, 폭 2.48m로 되어 있어 중앙칸의 홍예가 좌우칸의 홍예보다 좀 더 넓고 크다.
- 또한 바깥쪽의 홍예(虹霓面)는 하천수(河川水)의 저항을 적게 받도록 하기 위하여 하대석(下



북수문

臺石)의 기반석(基盤石)을 상류(上流)로 향하여 45°로 마름모지게 다듬었다.

- 홍예문의 위로는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통로를 두었고 성벽에 바짝 붙여서 누각을 세웠다. 이 다리의 길이는 29.45m, 폭은 9.61m이며 성벽에는 포(砲)를 쏠 수 있는 구멍과 건물내의 배수(排水)를 위한 누조가 설치되었다. 누각은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건축면적은 52.89㎡이며 초익공계 양식에 팔각지붕으로 되어 있다.



남수문 내도

2) 남수문(南水門)

- 수원화성의 남북으로 관통하여 흐르는 하천의 성곽남쪽에 있었으나 현재 이 지역은 수해로 인해 유실된 이후 복원되지 않았다.

마. 장대(將臺)

- 성(城)주변의 사방을 조망하면서 장병들을 지휘하던 곳으로 서장대와 동장대가 있다.

1) 서장대(西將臺)

- 서장대는 일명 화성장대라 하며 팔달산(八達山) 정상에 위치하고 있어 성의 안팎이 한 눈에 들어오는 곳에 있다.
- 서장대의 건물은 퇴락되어 없어진 것을 1971년에 화성성역의궤에 의거해 복원한 것으로 정면 3칸, 측면 3칸의 중층누각으로서 1층의 건축면적은 64.64㎡, 2층의 면적은 16.16㎡이다. 이 건물은 서북 모퉁이에 사다리를 놓아 상층으로 오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모임지붕 정상부는 절병통으로 장식하였다.



서장대

2) 동장대(東將臺)

- 동장대는 성의 동북향(東北向)에 위치하고 있다. 군사들의 훈련을 지휘하던 곳으로 연무대라고도 한다. 이곳은 지형이 높은 곳은 아니지만 사방이 트여있고 언덕의 동성이가 솟아있는 곳이어서 동쪽 구릉지역 중 가장 요지(要地)이다.
- 동장대는 정면 5칸, 측면 4칸의 단층건물로 건축면적은 143.37㎡이며 초익공계 양식에 팔작지붕으로 되어 있다.



동장대

바. 각루(角樓)

- 비교적 높은 위치에 누각 형태의 건물을 세워, 때로는 주변을 감시하고 때로는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곳이다. 성의 동북, 서북, 서남, 동남쪽에 있다.

1) 동북각루(東北角樓)

- 동북각루는 北水門(화홍문)의 동쪽 구릉 정상에 위치한다. 외부에는 용연(龍淵)이라 부르는 연못이 있고 성벽도 돌출된 위치에 있어 주위경관의 수려함은 물론 전략상 중요한 지형에 위치하고 있다.



동북각루

- 동북각루는 방화수류정(訪花隨柳亭)이라는 현관이 걸려 있으며 2층으로 되어 있어 상층은 사방이 탁트인 누각으로 되었다.
- 이 건물은 상하층의 면적이 각각 46.9㎡로, 목조의 누각식 건물구조를 살리면서 벽돌을 조화롭게 혼용하여 구성하였으며, 목조건물로는 평면형태가 매우 복잡하여 북측면은 8각형, 남측면은 7자형을 이룬다. 이에 따라 지붕의 처리도 여러

겹으로 전개되며 복잡하게 꾸며져, 우리나라의 다른 건물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빼어난 건축미(建築美)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용연을 배경으로 화홍문과 함께 잘 어우러져 수려한 절경을 이룬다.

2) 서북각루(西北角樓)



서북각루

- 서북각루는 화서문의 서남쪽으로 173.45m 거리에 있으며 성곽도 이곳에서 약간 안쪽으로 꺾여 산 정상부로 향하고 있다.
- 각루 건물은 인멸되어 1975년에 복원되었는데 정면 2칸, 측면 2칸으로 건축면적은 35.64㎡의 누각이다. 아래층 일부에는 온돌방을 두어 수직(守直)하는 군사들이 거처하게 하였고, 2층은 마루방으로 되었으며 벽의 판문(板門)에는 모두 짐승의 얼굴을 그리고 화살 구멍을 뚫어 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서남각루(西南角樓)



서남각루(화양루)

- 서남각루는 성의 서남쪽에 외파로 멀리 떨어져 있으며 높은 지점에 자리잡고 있어 전망이 매우 좋다. 즉 서장대와 팔달문(남쪽문)의 중간 지점 산록(山麓)에, 서남암문에서 용도(甬道)를 통하여 외부로 돌출된 외성(外城) 끝 부분에 위치한 지역으로 요충지역의 방어를 견고히 하기 위하여 세웠으며 용도의 중간지점에는 동서로 치(雉)가 하나씩 돌출되어 축조되었다. 이 각루는 일명 화양루(華陽樓)라고도 하며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건축면적은 29.04㎡이다.

4) 동남각루(東南角樓)

- 수원성의 동남쪽 모퉁이에 있으며 산 중턱에 성벽이 꺾이면서 돌출되는 부분에 위치하여 주위를 조망하기 좋은 곳에 위치한다.
- 각루는 2층 건물로 각층의 면적은 18.84㎡이다. 1층 일부에는 온돌방을 두어 수직(守直)하는 군사가 머물게 하였고 2층에는 관문에 화살구멍을 뚫어 방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남각루

사. 공심돈(空心墩)

- 돈(墩)은 일종의 망루(望樓)와 같은 것으로, 공심돈이라 함은 4면벽체를 구성하면서 벽체 내부 주위로는 사다리 및 통행로를 두고 중앙부는 빈 공간으로 둔 것을 말한다.
- 외부벽체에는 구멍을 많이 뚫어 바깥의 동정을 엿볼 수 있고 불랑기, 백자총 등을 발사하여도 적으로서서는 화살이나 총탄이 어느 곳으로부터 날아오는지 알지 못하도록 구성된 매우 독특한 구조이다.
- 수원화성에는 서북공심돈과 동북공심돈이 남아 있고 남공심돈은 그 지역이 시가지화되면서 인멸되었다.

1) 서북 공심돈

- 화서문의 북치(北雉)위에 벽돌로 돈대를 네모지게 쌓았으며 치의 높이는 4.65m, 공심돈의 높이는 5.58m이다.
- 이 공심돈은 성벽 상부에서 3층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1층 및 2층의 외벽과 3층의 하부는 벽돌로 쌓고 내부 골조는 목조로 되었다. 1층 성벽의 각 면에는 구멍(懸眼)을 뚫어 내부에서 성에 접근하는 적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윗 부분



서북공심돈

에는 총화기를 쓸 수 있도록 총안(銃眼)을 내었다. 하부는 벽에 기둥을 세워 3층으로 구성하고 3층은 정면 2칸, 측면 2칸, 건축면적 22.8㎡의 망루를 세웠다.



동북공심돈

2) 동북 공심돈

- 동북공심돈은 동장대의 동쪽 즉 성곽의 동북측 모퉁이에 있으며 평면이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 수원화성 내에서 특이한 건물 중 하나이다.
- 이 공심돈의 전체 높이는 6.8m이며 내부에 나선형의 계단을 설치하여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 벽에는 여러개의 총안을 두어 안에서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적의 동정을 살피거나 외부의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고안되었고 건물 내부 아래쪽에는 온돌방을 들여 군사들이 숙직하도록 하였다.
- 상부에는 정면 2칸, 측면 1칸의 건축면적이 11.53㎡인 기와지붕의 누각을 세워 공심돈의 상부를 마무리 짓고 이곳에서도 외부 적의 동정을 살필 수 있도록 하였다.

아. 적대(敵臺)

- 적대는 성문과 웅성 등에 접근하는 적을 방어하기 위해 성문 좌우에 설치된 것으로 장안문 좌우와 팔달문 좌우에 설치되었으나 팔달문 좌우의 적대는 이 지역이 시가지화 되어 인멸되었다.



북서적대

1) 북서적대

- 북문인 장안문 북서쪽 50m 거리에 자리잡고 있는 북서적대는 성곽에서 외부로 돌출되어 있으며 성벽에는 현안(懸眼)을, 여장에는 총안을 두

고 있어 성문을 방어하기 유리하도록 되어 있다.

- 적대의 높이는 6.15m로 성밖으로 8.8m 돌출되어 있다.

2) 북동 적대

- 북문인 장안문 북동쪽 50m 거리에 위치한 북동 적대는 시설이나 용도 및 규모가 북서적대와 거의 같다.



북동적대

자. 노대(弩臺)

- 여러개의 화살을 한꺼번에 쏘는 활의 일종인 쇠뇌를 두어 유사시 쓸 수 있도록 정 8각형의 평면에 벽돌로 높이 쌓은 대(臺)이다.
- 수원화성의 노대는 서노대와 동북노대가 있는데 서노대는 1971년에, 동북노대는 1976년에 보수되었다.

1) 서노대

- 서노대는 서장대의 서북쪽에 동향하고 있는 서장대 주위의 중요한 방어시설이다.
- 대(臺)의 한변 길이는 2.76m, 높이는 3.11m이며 대(臺) 위에는 1.45m 높이의 여장을 쌓아 총안을 내었으며 바닥에는 벽을 깔고 중앙부에는 한 단 높은 높이 26cm의 방대(方臺)를 쌓았다.



서노대

2) 동북노대

- 창룡문(동쪽문)과 동북 공심돈 중간에 동북향하고 있는 동북노대는 성벽에서 평면이 타원형으로 돌출되어 있으며, 서남측 방향에 계단을 설치하여 오르내릴 수 있게 하였다.
- 노대의 바닥에는 벽돌을 깔고 외부는 원형의 여장(女牆)을 쌓았으며 여장에는 타구와 총안을 두었다.



동북노대



동북포루

차. 포루(舖樓)

- 치성 위에 있는 누각으로 적을 관찰하며 성내에서 이동하는 아군의 동향을 적이 알지 못하게 하는 시설물로서 초소나 군사대기소 같은 곳이다.
- 수원화성에는 5개소의 포루가 있는데 누각은 층루(層樓)로 되어 있어 하층에는 총포혈(銃砲穴)을 두었고 필요에 따라 성벽도 벽돌로 쌓았다.

1) 동북포루

- 동북포루는 동북각루와 동장대 사이에 있으며 성곽의 굴곡 돌출부에 있다. 누각은 중층건물로 각 층의 건평은 18.45㎡이다.

2) 북포루

- 북포루는 서북포루(砲樓)와 서북 공심돈 사이에 있으며 누각은 중층건물로 각 층의 건평은 23.43㎡이다.



서포루

3) 서포루

- 서포루는 서장대 남쪽 서암문과 서삼치 사이에 있으며 치성처럼 돌출된 부분에 중층 누각을 세웠다. 각 층의 면적은 19.71㎡이다.

4) 동1포루

- 창룡문(동쪽문)의 서쪽에 있으며 중층누각으로 하층의 건평은 20.18㎡, 상층은 13.45㎡이다. 루 밑에는 현안(懸眼)과 근총안(近銃眼), 원총안(遠銃眼)을 두었다.



동2포루

5) 동2포루

- 봉돈(烽墩)의 남쪽에 있으며 중층누각으로 하층의 건평은 16.76㎡, 상층은 8.38㎡이다. 역시 현안과 원·근총안을 두었다.

차. 포루(砲樓)

- 포루는 성벽의 일부를 밖으로 돌출시켜 치성과

유사하게 축조하면서 내부를 공심돈과 같이 비워 그 안에 화포 등을 감추어 두었다가 적을 공격하도록 만들 시설이다. 구조적으로는 3층으로 하여 하부에는 화강석 석축으로 하고 상부는 벽돌로 축조하였으며 최상층에는 목조의 건물을 세웠다.

1) 서포루

- 서장대의 북측으로 서일치와 서이치 사이에 있으며 누각은 1970년대에 복원하였다. 최하층에는 성 밑을 겨눌 수 있게 포혈(砲穴)을 내고 총안을 각면에 두었으며 2층에는 상하 2단의 총안을, 상층의 여장에는 총이나 화살을 쏠 수 있는 구멍을 내었다.



서포루

2) 남포루

- 남포루는 팔달문 서측의 팔달산 중턱에 있는 3층의 구조물로, 각층의 면적은 25.8㎡이며 포혈과 총안이 설치되었다.



남포루

3) 북서포루

- 장안문의 서쪽에 있으며 3층의 구조물로 각층의 면적은 28.29㎡이다. 역시 포혈, 총안, 전안(箭眼)등을 갖추고 있다.



북서포루

4) 동포루

- 봉돈의 북쪽에 있으며 3층의 구조물로 각층 면적이 28.8㎡이다.



동북포루

5) 동북포루

- 장안문과 화홍문(북수문) 중간에 있으며 3층의 구조물로 각층의 면적이 27.26㎡이다.

타. 치성(雉城)

- 치는 성곽 요소요소에 성벽을 돌출시켜, 전방과 좌우 방향에서 성벽에 접근하는 적병을 방어하

기 위한 시설이다.(치성 위에 지은 누각을 일반적으로 포루(舖樓)라 하고 또 이와는 구조가 약간 다르나 대포 등을 장비한 곳을 포루(砲樓)라 한다. 또한 성벽에 휘어 돌아가는 모퉁이의 돌출되는 부분에 세운 누각을 각루(角樓)라 하고 성문을 수호하기 위해 성문 좌우에 배치된 치성을 적대(敵臺)라 한다.) 수원화성에서 순수한 치성은 10개소이다.

1) 서1치

- 서일치는 서북각루와 서포루(砲樓) 사이에 위치하며 성벽에서 돌출된 길이는 6.30m, 폭은 6m이다. 돌출된 3면에는 여장(女牆)을 돌리고 원총안과 근총안을 각면에 내었으며 성벽 전면에는 현안을 두었다.



서1치

2) 서2치

- 서이치는 서포루(砲樓)와 서장대 사이에 위치하며 돌출길이는 5.65m, 폭 5m이다.



서3치

3) 서3치

- 서포루(舖樓)와 서남 암문 사이에 있으며 돌출길이 5.80m, 폭 4.1m이다.



동1치

4) 남치

- 남포루(砲樓)와 팔달문 사이에 있으며 돌출길이 5.80m, 폭 4.15m, 높이 4.15m이다.

5) 동1치

- 동1포루(舖樓)와 동포루(砲樓) 사이에 있으며 돌출길이 7.4m, 폭 5.25m, 높이 3.1m이다.



동3치

6) 동2치

- 동포루(砲樓)와 봉돈 사이에 있으며 돌출길이 7.05m, 폭 5.2m, 높이 3.75m이다.

7) 동3치

- 동2포루(舖樓)와 동남 각루 사이에 있으며 돌출

길이 5.7m, 폭 7.2m, 높이 3.82m이다.

8) 북동치

- 장안문 옆 북동적대 바로 옆에 접하여 있으며 돌출길이 7.73m, 폭 6.5m, 높이 5.3m이다.



북동치

9) 서남1치 및 서남2치

- 서남각루(화양루)로 나가는 외성의 용도(雨道) 중간부에 좌우로 있으며 서남1치의 돌출길이는 3.05m, 폭 5.3m이고 서남2치의 돌출길이는 2.9m, 폭 5.15m이다. 용도치라고도 한다.



서남1치 및 서남2치

파. 봉돈(烽墩)

- 봉돈은 창룡문(동쪽문) 서남쪽의 동2치와 동2포루(鋪樓) 사이에 있다. 이 봉돈은 치성과 같이 성벽에서 돌출하여 벽돌로 쌓고 그 위에 5개의 화독(또는 화두 火頭라 함)을 쌓았는데 행궁을 지키고 성을 파수하며 주변을 정찰하여 불빛과 연기를 신호로, 인근에 사태를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즉 5개의 화독 중 평상시에는 1개를, 적이 나타나면 2개, 경계에 접근하면 3개, 경계를 침범하면 4개, 적과 접근시에는 5개의 화독에 불빛이나 연기가 오르도록 하여 그 사태를 중앙정부에까지 보고되도록 한 것이다.
- 봉돈안쪽에는 군기고와 병수처 1칸씩의 건물을 지었으며 면적은 각 17.81㎡이며, 외면 벽측에는 현안과 총안 등을 내어 봉돈을 방어하였다.
- 봉돈의 대부분은 높은 산봉우리 등에 설치되어 있으나 수원화성만은 성곽안에 설치되었다.



봉돈

3. 수원화성 복원

가. 복원정화사업의 의의

귀중한 문화유산인 수원성곽의 웅건한 위용을 복원 보수함으로써 충효사상을 앙양하고 창의적 축성기술을 후세까지 길이 빛나게 하고자 함.

나. 복원방침 및 범위

잔존하는 유구와 유적을 중심으로 하여 시가지화한 지역과 도로로 절개된 부분을 제외한 성곽시설물과 행궁, 남수문등을 제외한 복원이 가능한 중요시설은 전면 복원



1930년대의 서장대

다. 총 공사개요

1) 사업개요

1974년 7월 대통령 분부사항으로, 수원성복원 정화사업은 당초 계획시에는 4개년계획으로 책정하였으나 마무리 단계에서 부분적인 지침의 변경과 토지매입, 철거등에서 발생한 공사지연으로 5개년이 소요되었다.

- 착공 : 1975. 5
- 완공 : 1979. 9

2) 공사비 및 사업내용

- 공사비 : 3,286백만원(국비 1,655, 교부금 137 지방비 1,494)

— 사업내용

- 성곽복원 및 정비 : 성곽, 여장 5,099m, 4대문 4동, 암문 4개소, 수문 1개소, 적대 2개소, 노대 2개소, 공심돈 2개소, 봉돈 1개소, 포(砲)루 5동, 포(舖)루 5동, 각루 4동, 장대 2동, 포사 1개소, 치성 10개소



1990년대의 서장대

- 주변정화 : 장안공원조성 12,200평, 도로정비 4,500m, 주변조경 33,400㎡, 건물 정비 526동, 하천정비 500m, 기타 정비 12건
- 장애물철거 및 토지매입 : 가옥철거 422동, 토지매입 21,695평, 전주이설 14본

3) 시공청 및 사업참여자

- 주관시공청 : 경기도
- 주변정화 : 수원시
- 기술지도 :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 설 계 자 : 삼성건축설계사무소 대표 장기인
- 시 공 자 : 대림산업주식회사 대표 이정익

4) 수원성 복원자료

- 화성성역의궤
- 조선고적도보
- 조선왕조실록
- 수원읍지 및 제지리지
- 1920~1940년대 실측도면



1960년대 동북공심돈



1990년대 동북공심돈

4. 화성성역의케 해설

□ 조선왕조 정조 18년(1794년) 1월부터 동 20년(1796년) 9월까지의 수원성(화성) 축조에 대한 내용을 도면, 제도, 의식, 채용등을 총망라하여 기록한 책으로 현재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다.



화성성역의케

□ 이책은 정조 20년(1796년) 11월 초고가 완성되어 순조 1년(1801년) 9월 규장각에서 “생생자”라는 활자본으로 발행하였으며 수권 1권, 본편 6권, 부편 2권 3편 등 총 9권 10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 화성성역의케는 성역에 참여한 모든사람들의 작업내용과(모든 목수, 석수의 이름과 작업과정까지) 들어간 돌한덩이 못하나까지도 세밀히 기록한 완벽한 자료로서 당시 조선의 높은 관리능력과 책임성 그리고 후대への 배려로서 세계에 유례가 없는 귀중한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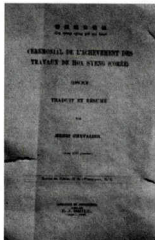
□ 주요수록내용은

○ 수권에는

- 범례를 비롯한 성역공사의 일정과 성역에 동원된 사람의 명단을 맡은 일별로 기록하고 있으며
- 성곽시설물의 도면과 새로 고안된 기계, 부속품 등의 도면과 설명문이 수록되어 있다.

○ 본문 1권에는

- 어제 성화주략(전체 성곽규모 및 공사지침)을 비롯 성역과정에 있어 주로 설계과정, 물자조달, 장인동원 등 각종 공사관련 어전회의 및 왕명을 수록하고 있다.



화성성역의케 들어판

○ 본문 2권에는

- 공사관련 각종 행사 의식, 역군들에 대한 시상 및 연회, 의약품의 배부 등의 내용과
- 공사와 관련된 각종 규칙 및 완성후의 관리 방법
- 상량문(건축물을 건축할 때 축복하는 글), 고유문(제례를 지낼 때 신에게 고하는 글)등이 기록되어 있다.

○ 본문 3권에는

- 성역에 소요되는 각종 물품의 운송, 조달에 관한 사항과
- 성역과 관련된 내용의 보고서, 기관간의 공문서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 본문 4권에는

- 성역과 관련하여 다른 관청에서 도착한 문서, 상급관청에서 하달된 문서, 상급기관에 보내는 질의서, 공사집행에 관한 규칙, 품삯과 공사용품물 매월 지급하는 규정, 기술자의 명단 등이 수록되어 있다.

○ 본문 5권과 6권에는

- 성곽의 시설별로 소요된 재용을 기록
- 인원 및 인건비, 소요자재 및 자재비, 행사비 등 축성시 경비조달, 건물별 지출내역을 총망라하여 기록하고 있다.



화성성역의궤

○ 부편 1

- 행궁, 관청 등에 관한 구조, 규모등 세부사항을 수록하였다.

○ 부편 2

- 행궁공사와 관련한 왕의 명령, 제례문, 상량문 및 지방관의 공문서 등의 내용을 상세히 수록하였다.

○ 부편 3

- 성곽외에 화성행궁 등의 시설에 소요된 재용을 세부적으로 기록하였다.

여 백

V. 용주사, 읍·건능



건능

여 백

V. 용주사, 용·건능

1. 용주사(龍珠寺)

소재지 :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송산리

이 절은 신라 문성왕 16년(854)엄거화상이 갈양사로 초창하였고 고려 광종때 해 각국사가 중건하였다. 그후 조선시대 정조가 그의 생부 사도세자(추존장조)의 능(현 룡원)을 양주 배봉산에서 수원의 화산으로 이장하고 보경스님을 도총섭으로하여 크게 중수하였는데 낙성식날 정조가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꿈을 꾸어 용주사라 개칭했다는 전설이 있다.

그후 고종 광무 3년(1899)용릉으로 추봉하면서 용릉의 원찰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사찰내에는 정조 14(1790)에 건립된 대웅전등 10여동의 목조건물과 신라 문성왕 6년(844)에 조성된 범종(국보 제120호), 정조가 기념식수한 회양나무(천연기념물 제264호)등의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다. 또한, 정조가 시주했다는 금동향로, 청동향로, 취규연 등 8점의 지방문화재와 일반동산문화재 24점이 보관되어 있다.

특히, 정조가 전생 부모의 은혜를 갚고, 현세 부모님께 효도하는 열가지의 은혜를 목조, 석조에 새기고 김홍도에게 그림을 그려 동판에 새기게 하여 이 절에 하사하였다고 전하는데 지금도 동판 7매, 석판 24매, 목판 54매가 전하여 온다.

이절은 조선시대의 사찰가람형식이 잘 보존되어 있는 유일한 예이다.

가. 용주사 범종(龍珠寺 梵鍾)

- 지정 번호 : 국보 제120호
- 지정년월일 : 1964. 3. 30.
- 시 대 : 고려시대
- 소 재 지 : 화성군 태안읍 송산리 188
- 소 유 자 : 용주사
- 규 모 : 높이 1.44M, 구경 0.87M
- 재 료 : 동



이 종은 고려시대 초기 범종으로서 우리나라 범종의 양식을 충실하게 갖춘 커다란 종이다.

종의 위부분에는 신라종에서 보이는 음통과 용뉴를 갖추고, 종몸통의 위아래의 문양대는 연주문과 여의두문으로 장식된 반원권의 문양과 당초문으로 장식되어 있고, 옷띠인 어깨띠에는 4개의 유곽내에 각각 돌기된 9유를 갖추고 있다. 종 중간부분에는 네군데에 연화문과 와문으로 장식한 당좌와 비천상을 배치하고 있는데, 비천상은 앞뒤에 배치하고, 좌우에는 두광을 갖추고 결가부좌한 삼존상을 배치 장식하고 있어, 고려시대 다른 종과는 특이한 배치방법을 하고 있다. 특히 당좌는 8개의 연꽃잎을 중심으로 와문을 연속시켜 원형을 이루었다. 아래띠인 구연대는 옷띠와 달리 위아래 연주문 안에 보상당초문이 장식되어 있는 점이 주목된다. 몸통에 음각으로 새긴 명문은 주조당시부터의 것이 아니고, 후대에 새겨넣은 것이다.

전체적인 종의 형식과 양식으로 보아 고려 초기의 범종으로는 중요한 것 중의 하나다. 크기는 총높이가 144cm, 구경이 87cm이다.

나. 용주사 회양나무

- 지정 번호 : 천연기념물 제264호
- 지정년월일 : 1979. 12. 11.
- 시 대 : 조선시대
- 소 재 지 : 화성군 태안읍 송산리 188
- 소 유 자 : 용주사
- 형 태 : 수고 4.6m, 둘레 53m
- 수 령 : 약 3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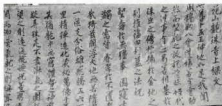


이 회양목은 조선시대 정조가 사도세자(후손: 장조)의 능을 양주 배봉산에서 화산으로 이장하고 능사로 용주사를 중수할때 손수 심은 기념수라고 전해오고 있다.

회양목은 본해 석회암지대에서 주로 나고 키가 7M정도까지 자라는 늘푸른 나무로서 관상용으로 흔히 심고 있으며 목재는 조각재 등으로 널리 사용된다.

다. 용주사 상량문(龍珠寺 上樑文)

- 지 정 번 호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3호
- 지정년월일 : 1972. 5. 4.
- 시 대 : 조선시대 정조 14년(1790)
- 소 재 지 : 화성군 태안읍 송산리
- 소 유 자 : 용주사
- 규 모 : 길이 15M
- 재 료 : 공단(감이 두껍고 무늬가 없는 비단)



조선시대 정조대왕이 생부 장헌세자의 명복을 빌기위하여 1790(정조 14)년에 용주사를 중수할때 채제공이 왕명을 받들어 상량문을 짓고 쓴 것이다.

중국 소주산 공단위에 쓴 이 글씨는 필치가 매우 우려하다. 공단은 200여년이 지난 오늘에도 퇴색되지 않았으며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질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이 상량문의 내용은 “중생이 사는 속세의 아름다운 나무가 있는 대지인 이곳 화산은 명산 속리산에서 지맥이 뻗어내려 북으로 5~6백리 지점인데 지세의 변화가 용이 꿈틀거리듯 조화가 감추어져 있고 꾸불꾸불 길게 늘어선 모양은 황홀이 구름을 타는 듯하고 산천의 경치는 맑고 아름다움을 더한 곳에 주상 전하께서 지극한 효성을 다하여 선왕의 원침을 정하고 경사로운 땅에 무한한 정성을 기울려서 절을 지어 기복사로 하였다. 상량한 후 한자루 등을 전하거든 세상의 시작과 중간과 끝까지 촛불을 고루 퍼지게 하여 재해가 없고 길이 번성하여 영원히 선침의 수호신이 되어 주실 것이며 대양 군왕에게 만수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노라”하였다.

라. 어제용주사 봉불기복게(御製龍珠寺 奉佛祈福偈)

- 지 정 번 호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4호
- 지정년월일 : 1972. 5. 4.
- 시 대 : 조선시대 정조 20년(1796)
- 소 재 지 : 화성군 태안읍 송산리
- 소 유 자 : 용주사
- 규 모 : 가로 45cm, 세로 68cm
- 재 료 : 닥나무 종이



조선시대 정조대왕이 부친 사도세자의 원침을 양주 배봉산에서 화산으로 옮기고 그의 명복을 빌기위하여 1790년에 기복사로 용주사를 중수하고 1796년 불교식가사체로 불불기복계를 왕이 손수 지어 내렸다. 손으로 베낀 책으로 된 이 기복계는 정조의 친필로 추정되며 필치가 매우 유려하고 2책으로 되어있다.

불불기복계의 내용은 “이 사찰은 현통원의 재궁(재실)으로 건립하였다. 소자(정조)는 8만 4천의 보안법문(진리에 이르는 문의 뜻으로 부처의 가르침) 경서의 뜻을 베껴 썼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삼가 게어(偈語)를 지어 3업의 공양을 드리며 보은의 복전(삼보와 부모를 공경하고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선행의 결과로 복덕이 생긴다는 뜻에서 그 원인은 되는 삼보·부모·어려운 사람을 일컬음)을 고친다고 하고 동방의 길한땅 화산에 새로운 절을 짓고 대지의 가장 윗부분에 성스러운 상(像)을 모시니 때에 응해서 구원이 내리리로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복을 갖 생겨날때부터 내리어 얹히고 설켜 이 강토에 꼭 찻다.

모든 세상의 불(佛)을 다시 모시니 하나 하나가 모두 불의 은덕일세 내 참됨이 이 같음을 아니 법력이 가없이 빛난다고 불을 칭송할 것이다.

마. 용주사 병풍(龍珠寺 屏風)

- 지정 번호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5호
- 지정년월일 : 1972. 5. 4.
- 시 대 : 조선 후기
- 소 재 지 : 화성군 태안읍 송산리
- 소 유 자 : 용주사
- 규 모 : 가로 65.5cm, 세로 222.5cm
- 재 료 : 한지



용주사에 소장되어 있는 병풍으로 풀과 나무그림 8폭짜리와 4폭짜리 2구이다.

화폭이 정교하여 단원 김홍도 그림으로 전해오고 있으나 화풍은 다르다. 그러나 우리나라 회화사상 귀중한 자료인 동시에 민속자료로서도 중요하다.

이 병풍은 용주사 창건당시 왕실에서 사용하던 것을 하사하였다 하나 확실하지 않다.

바. 용주사 대웅전 후불정화(龍珠寺 大雄殿 後拂幀畫)

- 지 정 번 호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6호
- 지정년월일 : 1972. 5. 4.
- 시 대 : 조선 후기
- 소 재 지 : 화성군 태안읍 송산리
- 소 유 자 : 용주사
- 규 모 : 세로 4m, 가로 3m
- 재 료 : 견(비단)



정화는 불교의식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견본에 불투명한 원색으로 채색한 것으로 석가모니불과 좌우에 문수·보현보살이, 주위에는 가섭, 아난 등 10대 제자와 7보살이 있고 하단 중앙에 2보살이 있으며 사천왕상이 있다.

새로운 음염법이 사용된 불화양식을 보여주고 있어서 매우 귀중한 작품이다.

구도, 형태, 채색, 음염법 등 모든 점이 20세기 초기에 제작된 전등사 대웅전 후불탱화와 동일하므로 19세기말 내지 20세기 초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정화는 용주사 대웅보전내 삼존불이 안치된 뒷편에 게시되어 있다.

사. 용주사 대웅보전(龍珠寺 大雄寶殿)

- 지 정 번 호 :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35호
- 지정년월일 : 1983. 9. 19.
- 시 대 : 조선 후기
- 소 재 지 : 화성군 태안읍 송산1리 188
- 소 유 자 : 용주사
- 규 모 : 정면 3칸, 측면 3칸
- 재 료 : 목조와죽



용주사의 가장 중심이 되는 법당으로서 오래된 건물은 아닐지라도 창건당시의 규모와 형태는 잘 간직하고 있다. 보경스님이 팔도도화주가 되어 갈양사터에 세웠는데 사도세자의 능이 근처에 있어 이 절을 능사로 삼았다.

건물은 다로계 양식으로 겹처마에 단청이 있고, 팔작지붕으로 되어 있는데 네 귀퉁이에 굽은 기둥을 받치고 있으며 전면은 각각 4분합의 솜을 문이 있고 어간 좌우두 부분에 용머리가 돌출되어 있다.

6단의 계단에는 우석이 있고 좌우로 연결된 장대석 기단은 고려말엽, 조선초기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 용주사 천보루(龍珠寺 天保樓)

- 지 정 번 호 :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36호
- 지정년월일 : 1983. 9. 19.
- 시 대 : 조선 후기
- 소 재 지 : 화성군 태안읍 송산1리 188
- 소 유 자 : 용주사
- 규 모 : 정면 5칸, 측면 3칸
- 재 료 : 목조와즙



법당앞 안마당으로 들어가는 곳에 세워진 누마루 형식의 건물로서 대부분이 이 밑으로 출입하고 있다.

내부 현판에는 홍재루라 쓰여있으며 중층누각으로 단청이 있다. 익공양식의 겹처마에 팔작지붕인데 하층 초석은 하후상박한 4각 장대석으로 되어있고 2층은 누마루에 바깥으로 난간을 돌렸으며 좌우로 일곱칸씩의 회랑이 연결되어 있다.

자. 불설부모은중경판(佛說父母恩重經板)

- 지 정 번 호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7호
- 지정년월일 : 1972. 5. 4.
- 시 대 : 조선시대 정조 20년(1796)
- 소 재 지 : 화성군 태안읍 송산리 188
- 소 유 자 : 용주사
- 규 모 : 85판
- 재 료 : 동, 석, 목판



불설부모은중경판은 조선시대 정조 20년(1796)에 화성군 태안읍 송산리 188에 있는 용주사에서 제작된 것으로, 불교의 효행 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판본은 85판으로, 동판, 석판, 목판을 혼용하여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판본의 내용은 불설부모은중경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판본의 형식은 조선시대의 판본 형식을 따르고 있다.

부모은중경은 부모의 은혜가 막중함과 부모의 은혜를 갚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불교경전이다. 이 용주사 부모은중경판은 조선 정조가 억울한 참화로 돌아가신 아버지 장헌세자에 대한 효심의 발로로 새긴 것이다.

이 경전은 부모은중경을 실하게 된 동기를 비롯하여 부모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10가지로 제시하고 보은의 어려움을 8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보은하는 방법으로는 남에게 베풀며 진리를 실현하면서 사는 것이 최상의 길이며, 그러지 않고 불효의 경우는 아비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하여 지옥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경판은 동판 7판(변상도), 석판 24판(한역경문), 목판 43판(한역, 국역경문, 변상도)으로 정조 20년(1796)에 새긴 것이다. 이 중에서 변상도는 경전의 내용을 그림(21장면)으로 나타낸 것인데 그린 이는 미상이나 매우 정교한 필치로 묘사되어 있어 당시 도화서원의 작품으로 보인다.

이 부모은중경은 자식에게 효를 강조하는 것만이 아니라 부모의 역할까지 음미해 볼 수 있는 효에 관한 대승적인 경전이다.

2. 융·건릉(隆·健陵)

○ 지 정 번 호 : 사적 제206호

○ 지정년월일 : 1970. 6. 26.

○ 시 대 : 조선시대 정조 13년(1789), 순조원년(1800)

○ 소 재 지 : 화성군 태안면 안녕리 산1-1 외

○ 소 유 자 : 국 가

가. 융릉(隆陵)

영조의 세자였고 정조의 생부인 사도세자와 그의 비 혜경궁홍씨의 능이다. 사도세자는 영빈이씨의 소생으로 이복형 효장세자가 요절하자 그 뒤를 이어 2세의 어린나 이로 세자에 책봉되었다. 영조 25년에는 부왕을 대신하여 대리청정도 하였으나 주변의 무고등으로 부왕의 진노를 샀고 차츰 발작적으로 미친짓을 하기에 이르러 영조 36년 스스로 죽도록 명하였으나 듣지 않자 뒤주속에 가두어 죽게하였다. 영조는 곧 이를 후회하고 사도라는 시호를 내렸고 그후 정조가 즉위하면서 장헌세자로 추존하고 생부의 비명원사를 늘 슬퍼하여 경모궁을 지어 매월 삭망에 참배하며 행차를 자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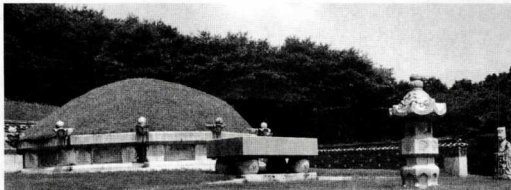
광무 3년(1888)장조로 추존하였다.

경의왕후 풍산홍씨는 영의정 홍봉한의 자녀로 영조 20년 세자빈에 책봉되고 영조 38년(1762년) 세자가 돌아간 후 혜빈의 호를 받았다. 아들 정조가 즉위하자 궁호가 혜경으로 올랐고 광무 3년 경의왕후로 추존되었다. 왕후는 사도세자의 참변을 중심으로 자신의 한많은 이야기를 쓴 회고록인 “한중록”을 남겼다. 정조를 앞세우고 순조 15년 춘추 81세로 승하하였다.

원래 양주 배봉산에 있던 영유원을 화산으로 옮겨 원호를 현릉이라 하였다. 정조는 현릉원을 마련할때 온갖 정성을 기울여 조선시대 어느 원보다도 후하고 창의적인 상설을 하였으니 장릉(長陵)식의 병석을 두르고 인석(引石)은 화뢰형으로 하고 무석까지 만들어 세웠다. 특히 장명등은 전기의 팔각장명등과 속종, 영조시대에 등장한 사각장명등의 양식을 합하여 윤족이 달린 새로운 양식으로 만들어 세웠고 정

조의 건능, 철종의 예능의 장명등의 본이 되고 있다.

능의 석인은 사실적이며 가슴에 과묵했던 종래의 목이 위로 나와 답답하지 않다. 문석에서는 종래 과거에 급제한자가 홍패를 받아 쓰던 관대신 금관을 쓴 예가 나타나고 있다. 19세기 이후의 능석물 양식상에 많은 영향을 준 능이다.



용능

나. 건능(健陵)

제22대 정조와 효의왕후의 능이다. 정조는 영조 28년(1752) 장헌세자의 제2자로 탄생하여 영조 35년 왕세손에 책봉되었고 영조 51년 대리청정을 거쳐 영조 52년 즉위하였다.

정조는 영조의 탕평책을 계승하여 시행하며 농정에 관심을 기울였다. 또 드물게 보는 호학의 군주로서 규장각을 두어 학자들을 모아 경사를 토론시키고 많은 서적을 편찬 발간하였으며 왕 자신도 “홍재전서”를 남겼다. 또한 효성이 지극하여 비명에 간 생부 장헌세자 묘를 화산으로 옮긴 뒤 수시로 참배하였고 수원에 성을 새로이 건설하고 유수부로 승격시켰다.

효의 왕후 청풍김씨는 청원부원군 김시묵의 자녀로 영조 38년 10세에 간택되어 세자빈에 책봉되었고 정조 즉위와 함께 왕비에 책봉되었다. 평소에 정순대비와 혜경궁 해빈에게 효성스러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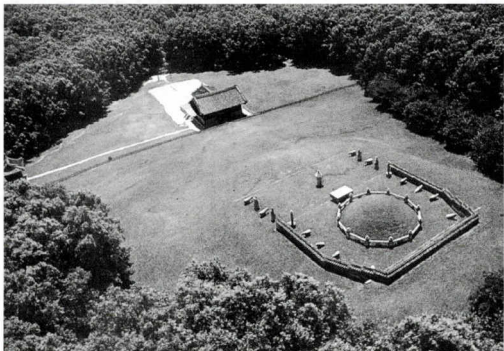
순조 21년 춘추 69세로 승하하였다.

건능은 원래 생부 장헌세자의 묘인 현릉원 동쪽에 있었던 것을 순조 21년 현 위

치인 현릉원 서쪽으로 이장하여 효의 왕후와 합장하였다. 천장의 이유는 풍수지리상 좋지 않음을 일러오던 터인데 마침 효의왕후가 승하하자 차체에 길지를 얻어 능을 옮기고자 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새능의 후보지로 여러곳이 물망에 올랐으나 현위치가 현릉원 곁이라서 우선하여 택하여 졌다.

건능은 정조와 왕후를 합장한 동능이실이며 병석없이 난간만 두르고 그외 모든 상설은 용능의 예대로 만들고 있다.

그리하여 합부능(합장)인데도 혼유석 1좌만 놓고 용능식의 장명등을 두고있다. 문무석의 조각이 지극히 사실적이고 안정감이 있는 수작이며 문관은 금관조복을 입고 있다. 용·건능은 19세기 능석물제도의 새로운 표본을 제시하였다.



건능

Ⅵ. 성곽



성곽

여 백

VI. 성 곶

1. 성곽의 정의

성곽이란 적군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흙이나 돌로 높이 쌓아올린 큰 담으로, 내성과 외성을 모두 일컫는 말이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성」은 내성만을 의미하고 「성곽」은 내·외성을 통칭하는 말인데 서로 혼용하고 있어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해도 무방할 것 같다. 또한 성곽의 한자용어도 城郭, 城郭 등으로 학자와 사전에 따라 다르게 표기되기도 한다.

2. 성곽의 기원

역사학적,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때 성곽의 기원은 대체로 기원전 1~2세기경 고지성집락(높은 지대에 위치한 집단 거주지)에 설치한 방어시설, 즉 독이나 환호(環壕: 외부의 침입과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집단거주지 둘레에 판 좁고 긴 도랑형태)에서 비롯되었으며 정복사업이 본격화하는 4세기경에 산성으로 발전한 것 같다. 특히 삼국시대 삼국간의 직접적인 마찰 및 대립과 이해가 상충되는 곳에는 전투가 많아 산성을 구축하게 했고 평지성에 비해 산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축조되었다.

3. 성곽의 종류와 분류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성곽이란 예상되는 적의 침입에 대한 방위를 위해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쌓은 구조물(構造物)이며, 이를 거점으로 하여 국토를 보전, 보호하도록 한 국방의 보루이다.

성곽은 다음의 몇가지 기준으로 분류된다.

가. 거주 주체에 의해

- 도성(都城) 또는 경성(京城): 도읍 주위에 쌓은 성. 또는 왕궁에 있는 성, 재정·행정성.
- 읍성(邑城): 지방 행정의 중심지인 고을 즉 읍 전체를 둘러 쌓은 성.

나. 지형에 의해

- 평지성(平地城) : 바닥이 편평한 평지에 쌓은 성. 옛 성지에 이런 평지 성이 많다.
- 평산성(平山城) : 평지와 산에 걸쳐 쌓은 성. 뒤에 산성을 의지하여 앞에 평지를 가진 성.
- 산성(山城) : 하나의 산을 두르거나 두 개의 산과 그 사이의 계곡을 둘러싼 우리나라 전형(典型)의 성으로 주로 산에 의거해 쌓았다.

다. 지리적 위치에 따라

- 국경성(國境城) : 국경의 방비를 위해 국경지대에 쌓은 관방(關防)으로서의 성이다.
- 해안성(海岸城) : 적이 침입하기 쉬운 해안의 요소에 쌓은 성이다.
- 강안성(江岸城) : 강을 방비하기 위해 강가 언덕에 쌓은 성이다.
- 내륙성(內陸城) : 해안지대에 대하여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육지에 쌓은 성이다.

라. 축성 재료에 따라

- 목책성(木柵城) : 나무 말뚝을 촘촘히 세워 박아 울타리처럼 만든 성으로 가장 초기에 토성보다 먼저 만들어진 것.
- 토성(土城) : 흙으로 쌓아올린 성으로, 순수한 토축성을 말한다.
- 토석혼축성(土石混築城) : 토성 중 그 견고도를 유지하기 위해 그 속에 막돌이나 판돌(板石)을 섞어서 다져 쌓은 성이다.
- 토석성(土石城) : 일부 구간은 토성으로 하고, 계곡이나 유실되기 쉬운 곳에는 석성으로 하여 견고하게 쌓은 성이다.
- 석성(石城) : 돌을 재료로 하여 쌓은 성으로, 돌도 막돌(자연석·호박돌)과 다듬은 돌 등이 있어 종류가 많다.
- 전축성(塼築城) : 벽돌로 성벽을 쌓은 성을 말하지만, 시대와 제작·용도에 따라 다르다. 성벽의 일부분 즉 여장(女牆)이나 전체의 공심돈(公心墩) 등에 쓰이는데 아주 견고하다.

마. 구조의 평면 형태에 따라

- 방형성(方形城) : 평면 형태가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의 성으로 평지성에 많다.
- 원형성(圓形城) : 평면 형태가 둥그런 원형의 성으로 역시 평지성에 많다.
- 부정형성(不定形城) : 평면 형태가 바탕이 되는 지면의 제약으로 부정형인 성이다.
- 장성(長城) : 국경지대 같은 곳에 길게 연달아 있는 성. 고구려와 고려의 천리장성(千里長城), 신라의 관문성(關門城)이 있다.
- 차단성(遮斷城) : 국경이나 요새지 등을 가로막아 적을 방비하기 위해 길게 쌓은 성으로 평야나 중요한 고개, 산맥에 쌓여 있다.

바. 성의 중복도(重複度)에 따라

- 단곽(單郭) : 성의 둘레를 단 한 겹만으로 쌓은 것을 말하며 대개의 작은 성들이 이에 해당되고 있다.
- 중곽(重郭) : 큰 둘레의 단곽 안에 성 안의 주요 부분을 둘러싼 작은 성이 한 가운데나 한쪽 귀퉁이에 치우쳐 있는 2중 성곽이다.
- 외성(外城) : 성이 2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의 바깥 성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산꼭대기에 있는 내성은 석성, 외성은 토축이 많다.
- 나성(羅城) : 본성(本城)의 한쪽에서 시작하여 돌아나간 성이다.

4. 성곽의 축성요소

가. 성문

성문은 축성목적에 따라 정문, 간문(間門), 암문 등이 있다.

성문의 수는 성곽의 규모, 축성목적에 따라 정해졌다. 기본적으로 4개를 두었는데 방향도 동서남북으로 하여 가능하면 간격도 일정하게 하여 출입의 불편을 줄이고자 하였다.

1) 성문의 종류

성문의 구분은 축성재료, 사용목적, 구성형태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세분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토성과 석성의 문에 대해서 알아본다.

○ 토성문

토성문의 형식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 조사된 결과에 의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가) 첫째 형식은 토성벽의 일부를 이용한 성문의 형태로 문의 양편에 토단을 두어 일반 성벽보다 높게 쌓아 성문을 보강한 형태이다.
- 나) 둘째 형식은 토성벽을 성문 부분의 개구부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중첩되게하여 토루가 웅성(壟城)의 역할을 하게 하여 성문을 보호하는 형태이다.
- 다) 세째 형식은 성벽의 가장 일반적인 형식으로 축조한 형태이다.

○ 석성문

현존하는 성문은 대개 석성의 성문으로 매우 다양하다. 성문의 축조재료는 석재를 비롯하여 목재, 철재, 기와 등으로 이루어졌다. 삼국시대의 성문이 남아 있는 것은 없으나 고분벽화에서 보이는 성곽도에서 살펴 보면 당시 중층(重層)의 누각과 그 좌우에 단층 누각을 보여주고 있어 상당히 발달된 형식임을 알 수 있다. 성문의 규모가 큰 도성들은 성문의 설치를 4방향 외에도 중간중간에 작은 문을 내었고 읍성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4방향에 성문을 두었다. 산성의 경우는 지형의 여건에 따라 성문을 두었는데 기본은 동서 남북 각 방향에 1개소씩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방어에 취약할 수가 있어 불필요한 곳에는 내지 않았다.

2) 성문의 형식

○ 개거식(開据式)

성문의 개구부 상부가 개방된 형태로 성문의 개구부 폭, 높이 등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토성문은 개거식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석성의 경우는 단순한 개거식에서 개거식 누문을 둔 경우도 있다. 개거식 또는 개방문이라고도 한다.

○ 평거식(平据式)

성문의 양쪽 벽석을 쌓고 그 위에 장대석이나 판석을 걸쳐 네모진 모양의 개거부를 낸 형태이다. 성문의 개구부의 크기가 작은 곳에 많이 이용된 형식이다.

○ 홍예식(虹霓式)

개구부의 윗 부분을 등굴게 틀어 홍예(무지개)모양으로 한 형식

○ 현문식(懸門式)

성문의 개구부가 설치된 위치가 일반 성문의 출입구와는 달리 성벽의 일정 높이에서 부터 시작되는 형식으로 일명 다락문 형식이라고 한다.

○ 문비(門扉)

성문의 개구부에 설치된 문짝을 말하는데 여닫도록 한 것이다. 문짝은 목재 판문으로 제작하여 바깥 쪽에는 철엽(鐵葉)을 씌워 화공(火功) 등에 대비하였고 성문은 안쪽에서 걸어잠글 수 있도록 했다. 성문의 관문(關門)은 외측 홍예 뒷편 석벽의 아래 위에 고정시킨 확돌에 끼워 고정하였는데 아래 부분은 무쇠로 만든 신쇠를 대고 들보는 화쇠를 씌운 둔테 구멍에 끼웠다. 윗 부분에서도 장부쇠를 씌워 둔테구멍에 끼움으로써 둔테(屯太:문지 도리를 끼우기 위해 구멍을 뚫은 나무토막)의 손상을 막고 확돌에 끼울 때도 나무장부를 보호하기 위해 장부쇠를 씌워 고정하였다.

○ 문루(門樓)

성문 위에 누각이 설치된 구조물을 문루라 하는데 외관을 돌고루 위엄을 갖는 의미가 있다. 또한 문루는 유사시 장수의 지휘소가 되며 적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초루(礎樓)라고도 한다.

○ 암문(暗門)

노출을 꺼리는 출입통로로 출입문 위에 문루를 세우지 않고 눈에 띄지 않게 몰래 출입할 수 있는 작은 문이다. 성내에 필요한 병기 및 식량 등을 운반하고 적에게 포위당했을 때 극비리에 구원을 요청할 수 있고 적을 엄습할 수 있는 통로로도 사용된 문이다. 암문의 형식은 홍예형식을 한 것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평거 형식을 한 것이 많다.

○ 수문(水門)

성곽의 배수를 위한 시설이다. 규모가 크고 문의 형식을 갖춘 경우 수문이라 하고 규모가 작은 것은 수구(水口)라 한다. 암문처럼 작고 눈에 띄지 않도록 설치하였다.

3) 성문보호시설

○ 웅성(壘城)

모양이 반으로 쪼갠 독과 같아서 웅성이라 한다. 웅성은 성문을 밖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외부에 설치한 이중 성벽을 말한다. 적이 성문에 접근하여 성문을 뚫으려 할 때 문루와 웅성에서 사방으로 협공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웅성은 평면이 사각형과 반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사각형 웅성이 시대가 앞선 것으로, 삼국시대의 성에서만 볼 수 있다. 웅성의 개구부가 좌우 어느 한쪽에 있는 것을 편문형(片門形)이라 하고 개구부가 중앙에 있는 것을 중앙식이라고 한다.

○ 적대(敵臺)

성문의 좌우에 설치한 치(雉: 성벽에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쌓은 성벽)를 말하는데 성체(城體: 성곽의 부속시설을 제외한 성벽의 몸체 부분)의 치(雉)와 구분해서 이르는 말이다. 이는 성문을 보호하기 위해 성문 주변 가까운 측면에서 공격할 수 있게 만든 방어시설 물의 하나이다.

나. 성벽

1) 성체(城體)

성벽에서 가장 근본을 이루는 성곽의 몸통 부분에 해당되고 보통 성곽의 높이는 성체의 높이를 말한다. 성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체 위나 주변에 부대시설을 설치하며 방어에 대비하였다. 부대시설에는 여장(女牆), 미석(眉石), 총안(銃眼), 현안(懸眼), 치(雉), 각루(角樓), 공심돈(空心墩), 용도(甬道), 해자(壕字)등이 있다.

2) 여장(女牆)

성체 위에 설치하는 구조물로, 적으로 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낮게 쌓은 담장을 여장이라 한다. 여장의 시작은 언제부터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삼국 초기부터 여장이 활용되었다고 한다.

○ 여장의 형식

일반적인 여장에는 타(垛화살을 막기 위한 성체 위의 구조물)와 타구(壕구: 성벽 위의 여장 구간마다 잘린 부분 구간의 움푹한 구간)가 있고 타에는 총안(銃眼: 여장에 뚫어놓은 구멍으로 총이나 활을 쏘게 되어 있는 구멍)을 둔 경우로, 평여장, 볼록 여장, 반원형 여장 등이 있다.

가) 평여장(平女牆): 대표적인 여장형태이다. 타와 타사이에 타구를 설치하고 크기가 일정한 장방형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타에는 총안을 3개소(近銃眼 1개소, 遠銃眼 2개소)를 둔 형태가 일반적이다.

나) 볼록여장(凸形女牆): 평여장이 변형된 형식의 여장으로 평여장의 형태에서 타구를 두단 접어 만든 형태이다. 타의 모양이 자연凸형이 되고 타구는 凹형으로 되어 원근의 적을 일시에 공격할 수 있도록 한 여장이다.

다) 반원형 여장: 반원형의 타를 연속으로 붙여놓은 형태와 단독으로 한개만 설치한 형태가 있는데 타의 중심에 원(遠)총안 1개소, 좌우에 근(近)총안 2개소를 설치하였다.

3) 미석(眉石)

성체와 여장 사이에 납작한 돌로 튀어나오게 설치한 시설로 마치 눈썹처럼 보여 미석이라 한다. 모든 성곽에 미석을 설치한 것은 아니고 성체 위에 미석을 쓰지않고 바로 여장을 쌓은 예도 있다.

4) 총안(銃眼)

성벽 위에서 적으로 부터 노출되지 않고 적에게 총이나 활을 쏠 수 있도록 여장에 나있는 구멍을 말한다. 여장에는 원거리를 관측하고 사격할 수 있는 원총안(遠銃眼)이 있고 성벽에 바짝 접근한 적을 공격하기 위한 근총안(近銃眼)이 있는데 근총안은 급경사(30~60도)지게 뚫었다. 원총안(遠銃眼)은 수평으로 뚫려 있다.

5) 현안(懸眼)

성벽의 바깥쪽 면을 수직에 가깝게 뚫어 성벽가까이 접근한 적을 공격하기 위한 시설이다. 적이 성벽에 완전히 밀착하면 성 위에서 발견하여 물리치기가 어려워져 14세기 말경에 창안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6) 치(雉)

성벽에서 적의 접근을 빨리 관측하고 전투시 성벽에 접근한 적을 정면 또는 측면에서 격퇴시킬 수 있도록 성벽의 일부를 돌출시켜 장방형으로 내쌓은 구조물이다. 치의 형태는 장방형이 많고 반원형의 형태도 있다. 산성의 경우 성벽과능선이 교차되는 높은 지점에 치를 만들고 평지성의 경우에는 산성보다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치를 설치하였다. 치의 높이는 성체의 높이와 같이 하고 규모는 일정치않으나 일반적으로 세로로 5~8m, 가로로 4~6m의 크기가 많다.

7) 각루(角樓)

성곽에서 성벽에 부착된 치의 일종으로 모서리 부분에 설치한 것을 각루라 한다. 네모난 성에서는 모퉁이에 설치하였고 산성 등 자연 지세를 이용한 경우에는 지형이 돌출되어 관측과 지휘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였다.

8) 공심돈(空心墩)

성벽에 설치한 돈대(墩臺: 성안 높직한 평지에 높게 축조한 포대)의 하나로 각루(角樓), 포루(砲樓: 성벽을 돌출시켜 대포를 쏠 수 있게 장치한 누각), 포루(舖樓: 성벽위에 지은 집)가 위치한 곳과 같은 치의 자리에 높다랗게 설치한 시설물인데 내부가 비어 있어서 공심돈이라 한다. 원형과 방형이 있다.

9) 용도(甬道)

성벽의 일부를 지형에 따라 좁게 성밖으로 길게 내뻗게하여 양쪽에 여장을 쌓은 성도를 말한다. 용도는 본 성벽과 같은 구조로 설치하였는데 외성 또는 치성(성벽의 바깥으로 사각형으로 덧붙여서 만든 성벽)에 통하는 좁은 길이 다.

10) 해자(壕字)

성벽의 주변(안과 밖)에 인공적으로 땅을 파서 고랑을 내거나 하천 등의 장애물을 이용하여 성의 방어력을 증진시키는 성곽시설의 하나이다. 해자는 적의 기동에 장애를 주는 하천·바다 등을 이용한 자연 해자와, 인공적으로 호를 파거나 고랑을 낸 인공해자로 구분할 수 있다. 한자표기로 壕字, 海字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다. 기타 성 안의 시설

1) 창고(倉庫)

창고는 군사들의 식량을 보관하는 군향고(軍餉庫)와 군창, 군기를 넣어 두는 군기고(軍器庫)등이 있었다.

2) 장대(將臺)

전투시 군사를 지휘하기 쉬운 지점에 장수의 지휘소인 장대를 쌓았는데 성 안 지형 중 가장 높고 관측이나 지휘가 용이한 곳에 두었으나, 성 안 면적이 넓어서 한 곳에서 지휘하기가 곤란한 지형에서는 지휘하기 편리한 곳에 두어 방향에 따라 동·서·남·북 장대라고 이름을 붙인다.

3) 물(水)

병사들의 식수·군마(軍馬)의 물 또는 취사·세탁을 위해 샘·우물·저수지 등이 있었는데, 수원(水源)이 부족한 경우 계곡물·빗물을 이용하거나 웅덩이를 만들어 보관하는 저수고(貯水庫)등이 있었다.

4) 사찰(寺刹)

삼국시대의 호국불교의 영향으로 성 안팎에 사찰이나 암자가 있어 승려가 머무르면서 수도하고 있다가, 유사시에는 무기를 들고 전장에 나가 나라 위해 싸운 사찰이 있었다. 이를 승병(僧兵)이라고 하며 이것이 한국 불교의 큰 특색이다.

이는 645년(고구려 보장왕 4년)에 당 태종이 쳐들어 왔을 때, '고구려에서 승군(僧軍) 3만이 나아가 이를 격퇴했다'는 기록까지 있을 정도이며, 이 전통이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의 임진·정유의 왜란과 정묘·병자의 호란, 나아가 일제시대의 독립항쟁에도 이어져 왔다.

5) 봉수대(烽燧臺)

성 안팎에 정세의 급변을 알리는 봉수시설이 있었다.

여 백

VII. 용 어 해 설



여 백

VII. 용어해설

□ 성곽(城郭)

각루(角樓) : 성의 굴곡부, 우각부, 돌출부 등의 모퉁이에 지은 다락집.

감동(監董) : 옛 성역, 국가 공역을 맡아보던 관원.

강회(剛灰) : 자연산석회를 900~1300℃ 가열하여 탄산가스와 물이 발산된 산화칼슘.

강회다짐 : 강회를 피어서 일정 비율로 모래와 백토 또는 황토를 혼합, 물반죽하여 다짐.

개판(蓋板) : 홍예성문(虹蜺城門)상부에 덮은 판자로, 일반적으로 홍예성문은 안팎에 만 돌로 쌓고 성문 내부는 마루형식으로 판자를 덮었음.

거중기(擧重器) :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데 이용되는 기구로 틀·도르래·밧줄 및 줄감개로 구성된 기구.(현대의 기중기와 비슷)

고란층계(高欄層梯) : 중층(重層)을 올라가는 난간 층층다리.

곡란층계(曲欄層梯) : 난간을 구부러 만든 층층다리.

곡성(曲城) : 성문 밖으로 앞을 가리어 반달 모양으로 구부러지게 둘러 쌓은 성. 웅성.

공심돈(空心墩) : 성에 있는 돈대(墩臺)의 일종. 두꺼운 벽으로 원형 또는 방형으로 쌓아올린 속이 빈 약간 높직한 누대.

공안(空眼) : 층안·층혈·누혈·구멍 등의 총칭.

규형(圭形) : 성의 몸체 즉 체성(體城)이 밑에서부터 점차 위로 올라가면서 곡선으로 휘어 올라간 형태.

근총안(近銃眼) : 여담에 구멍을 내어 가까운 곳을 쏘기 위해 경사지게 뚫어 놓은 구멍.

기단(基壇) : 성벽이나 건물을 축조할때 제일 맨 아래 단의 기초.

나성(羅城) : 이중으로 성을 둘러쌓은 경우 바깥쪽에 있는 성. 외성.

내탁(內托) : 성벽을 축조할 때 성의 내벽(內壁)을 쌓는 일.

노대(弩臺) : 원거리에 활을 쏘기 위해 성 안에 성보다 높이 만드 대.

누(壘) : 작은 성. 보루(堡壘). 성채(城寨)

누(樓) : 높게 놓은 마루(누마루).

누대(樓臺) : 높은 대 위에 높이 세운 누각(樓閣).

누문(樓門) : 2층 누다락으로 지은 대문. 또는 궁성. 성벽의 홍예문 위에 누각을 지은 것.

누삼문(樓三門) : 성벽 위에 누각을 짓고 그 밑은 홍예문을 낸 것.

누조(漏槽) : 물이 흘러 내리도록 만든 홈이나 홈통의 구조물.

단확(丹雘) : 곱고 빨간 빛깔의 흙. 일명 단사(丹砂)라고도 함.

담장(坦牆) : 집의 외곽을 둘러막아 벽처럼 만든 건축문.

대(臺) : 성(城), 보(堡), 둔(屯), 수(戍) 등의 동·서·남·북에 쌓아올린 장수의 지휘대.

돈대(墩臺) : 성 안 높직한 평지에 높게 축조한 포대(砲臺)로 그 안은 낮고 외부는 성곽으로 축조하여 포를 설치함.

돌홍예(石虹蜺) : 무지개 즉 반원 모양으로 성문을 내기 위해 인장(引張)이 약한 돌을 압축으로만 하중을 하부에 전달시키는 구조법.

망루(望樓) : 망을 보기 위해 높이 지은 누다락집.

목책(木柵) : 말뚝을 박아 만든 울타리.

무사(武砂) : 크기가 크고 잘 다듬은 성돌(城石)로써 문 옆의 석면(石面)을 만드는 것.

무사석(武砂石) : 네모 반듯하게 다듬은 성벽이나 담벽 등에 높게 쌓아올리는 돌. 사각형으로 다듬은 큰 돌.

문루(門樓) : 궁문(宮門)·성문이나 지방 관청의 바깥문 위에 지은 다락집. 초루.

미석(眉石) : 석성의 상부, 여장 밑에 여장을 쌓기 위해 눈썹처럼 판석을 약간 튀어나오게 설치한 돌. 눈썹돌.

바른층쌓기(整層積) : 석축할 때 돌의 수평줄 눈이 각 단마다 일직선이 되게 쌓는 일.

반원웅성(半圓壘城) : 평면이 둥그스름하게 반원형으로 된 웅성.

반월성(半月城) : 성곽의 평면 형태가 반달모양으로 된 것.(예, 경주월성, 부여 반월성)

방안(方眼) : 사각형으로 뚫은 구멍.

번와(燔瓦) : 기와를 굽는 일.

번와(翻瓦) : 기와를 갈아 끼우는 일.

벽루조(壁漏槽) : 빗물을 배수하기 위해 성곽에 만든 홈이 파인 석조. 또는 벽돌로 만든 수조(水槽).

벽성(壁城) : 벽돌로 쌓은 성.

성곽(城郭) : 성의 둘레. 내성(內城)과 외성(外城)전부. 성은 내성·곽은 외성을 뜻함.

성기(城基) : 성의 기초. 성의 터전.

성루(城樓) : 성문이나 성벽 위에 높이 세운 건물.

성문(城門) : 성곽에 낸 문. 성벽의 문.

성벽(城壁) : 성의 담벼락, 성을 이룬 수직에 가까운 벽(장).

성석(城石) : 성돌. 즉 성벽을 이루는 돌

성신(城身) : 성의 몸체, 성체·체성.

성역(城役) : 성을 쌓거나 수축하는 일.

성제(城制) : 축성의 방법.

성지(城址) : 성 터, 성을 쌓았던 자리.

성지(城池) : 성 내외에 파놓은 못. 해자·참호.

쇄석(碎石) : 막돌·잡석 등을 인공적으로 깨뜨려 만든 돌.

쇠뇌(弩杙) : 활을 발전시킨 것으로 나무들에 화살을 얹어 날려보낼 수 있도록 만든 기구.

수구(水溝) : 성벽 주변에 파놓은 개울.

수구(水口) : 물을 끌어들이거나 흘러나가게 한 구멍 또는 입구

수구문(水口門) : 성문 밑에 개구부를 내어 개울물이 흐르게 한 문.

수문(水門) : 성 안팎의 물을 통과시킬 수 있게 만든 장치.

암문(暗門) : 성벽에 적 또는 상대편이 알 수 없게 꾸민 작은 성문.

여담(여장女牆) : 성 위에 있는 낮은 담이며 총구와 타구(垛口)가 있는 구조물로서 성가퀴의 일종. 여첩.

사괴석(四塊石) : 20~25cm 내외 입방체형의 석재. 한 사람이 4덩이를 질만한 크기의 돌에서 나온 말. 사고석.

사모봉(紗帽峰) : 성곽축조의 지형으로 사모 모자와 비슷한 지형.

사혈(射穴) : 성벽에 내리쬘은 장방형의 구멍. 활이나 총을 쏠 수 있게 되어 있음. 총안.

산탁(山托): 성벽 축조시 안팎으로 쌓는데 산의 경사면을 이용하여 기대 쌓는 경우.
즉 바깥쪽만 성벽을 축조하는 것.

석누조(石漏槽): 돌로 만든 물 흘통.

석성(石城): 성벽을 쌓을 때 돌로 축조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성곽의 주류를 이루고 있음.

석축(石築): 돌로 쌓음. 돌로 쌓아 만든 축대.

석축성(石築城): 돌로 쌓아 만든 성.

영조척(營造尺): 곡척의 1.099척(尺)에 해당되는 자. 약 31cm내외.

옥개부(屋蓋部): 건물이나 여담의 지붕 부분.

옥개석(屋蓋石): 건물이나 탑 등의 지붕 재료로 쓰이는 돌.

옹성(壘城): 큰 성(城)의 성문을 보호하고 성을 튼튼히 지키기 위하여 성문 밖에 반원형 또는 방형(方形)으로 쌓은 성. 월성.

옹성문(壘城門): 성문으로 들어가는 곳에 성문을 보호하기 위해 둘러쳐 놓은 옹성이 딸린 문.

외성(外城): 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 바깥 성.

용도(雨道): 양쪽에 여장을 쌓아 외성 또는 돌출 치성에 통하게 한 길.

우석(隅石): 석축을 할 때에 모퉁이에 쌓는 돌.

은구(隱溝): 은밀하게 물을 빼기 위해 땅 속에 묻은 수채나 수구(水溝).

읍성(邑城): 한 도읍 전체를 둘러싸고 군데군데 문을 내어 외부와 통하게 만든 성.
또는 지방 행정의 중심지인 고을에 축성되어 있는 성.

잠자리무사: 홍예와 홍예를 잇대어 쌓은 뒤 벌어진 사이에 처음으로 놓는 돌. 윗면과 앞면은 평평하고 양 옆은 둥그스름하게 다듬고 밑은 맞닿아서 뾰족하게 됨. 청정무사.

장대(將臺): 성·보·둔·술(戊) 등지에 높게 쌓아 올린 장수의 지휘대

장대(牆臺): 성가퀴 즉 여담의 토대.

장대석(長臺石): 네모지고 길게 다듬은 돌. 섬돌 층계나 축대·지렛돌 따위에 쓰임.

재성(在城): 임금이 평시에 있는 성.

적대(敵臺): 성문을 보호하기 위한 누대. 사면에 담을 쌓고 성 안에 올라갈 수 있는 층층대가 있고 성 밖으로 화살이나 총을 발사할 수 있게 되어 있음.

적루(敵樓) : 치(雉) 위에 적을 관측하기 위하여 높다랗게 지은 다락집. 포사(舖舍).

전(顛) : 흙을 장방형 또는 방형으로 구워 만든 건축용재.

전돌평축성(埴石平築城) : 벽돌로 쌓아 올린 성.

전석(磚石) : 흙으로 구워 만든 벽돌. 검정벽돌.

전축(磚築) : 벽돌을 이용하여 성벽을 쌓은 것.

채석(採石) : 돌을 떠내는 일.

채석장(採石場) : 석재를 떠내는 곳.

채토장(採土場) : 객토(客土), 보토(補土) 또는 성토(盛土)를 위하여 흙을 파내는 장소, 토취장.

책(柵) : 나무를 둘러친 울타리.

책성(柵城) : 목책으로 둘러쳐진 성.

철여장(凸女牆) : 상부가凸형으로 된 여장.

철엽(鐵葉) : 성문 등에 박아대는 철판 쪽. 대문짝에 박는 장식의 하나.

첩(堞) : 성가퀴·여장(女牆)·여첩(女堞).

첩담(堞垣) : 성 위에 설치된 성가퀴, 즉 여장(女牆).

체성(體城) : 성곽의 부속 시설을 제외한 성벽의 몸체 부분.

초(譙) : 성 위에 만든 누각. 초루·문루.

총안(銃眼) : 성벽의 여장에 뚫어놓은 구멍으로 총이나 활을 쏘게 되어 있는 구멍.

근총안(近銃眼)·원총안(遠銃眼).

층루(層樓) : 2층 이상으로 높게 지은 누다락집.

층계(層梯) : 여러 층으로 된 사다리.

치(雉) : 성벽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쌓은 성벽으로 그 위에 여담이 둘러 쳐져 있음.

치성(雉城) : 성벽 바깥에 4각형으로 덧붙여서 만든 성벽인 치 위에 집은 없이 여담만 있는 것. 대개 각(角)을 이루고 있는 것을 치성, 둥근 것을 곡성(曲城)이라 한다.

치첩(雉堞) : 성벽의 시설물로 치(雉)와 성가퀴.

타(堞·躬) : 살받이 타, 즉 화살을 막기 위한 체성 위의 구조물. 또는 타구(堞口)와 타구 사이의 한 구간을 세는 단위.

타구(堞口) : 성벽 위의 여장 구간마다 잘린 부분. 구간의凹된 구간

타원형아치 : 홍예의 모양이 타원형인 것.

타첩(埧堞) : 타구와 성가퀴. 타구를 낸 여장.

평성(平城·坪城) : 평지에 쌓은 성(平地城).

평여장(平女牆) : 여장의 상변이 평평하게 된 여장.

포루(砲樓) : 성을 효과적으로 방비하기 위해 성벽을 돌출시킨 치(雉) 위에 대포를 쏠 수 있게 장치한 누각.

해자(垓字, 海子, 海字) : 성 밖에 둘러판 못.

호(壕, 濠, 隍, 隍, 隍) : 성 바깥 둘레에 도랑처럼 파서 둘러싼 것.

호박돌 : 개울에 있는 둥그런 막돌. 지름이 20~30cm 정도의 개울안의 자연석.

홀(圭) : 옛 관원의 패로서 활처럼 휘어져 있음. 성벽이 이런 모양이어서 규형(圭形)이라 함.

홍석(虹石) : 홍예 중앙마루에 놓은 홍예요석(虹蜺要石).

홍예(虹蜺) : 문얼굴의 윗머리가 무지개 같은 반원형.

홍예문(虹蜺門) : 돌, 벽돌 등으로 쌓아 위가 반달형으로 된 문.

홍예받침석 : 홍예의 양쪽 끝을 받친 큰 방각석(方角石).

홍예석(虹蜺石) : 홍예를 틀 때 쓰이는 한쪽이 넓고 다른 편이 조금 좁게 사다리꼴로 만든 돌.

□ 建 築

고주(高柱) 平柱보다도 키가 큰 기둥. 흔히 안통에서 서 있으므로 內陳柱라 한다. 여러 층으로 된 건물에서는 평주와 通柱, 四天柱와의 사이에 있다. 통주나 사천주는 필요한 높이가 되도록 기둥나무를 접착시켜 만드는 것이지만, 고주는 긴 나무 하나로 만들어 세우는 것이 보통이다. 고주는 위치에 따라 平高柱와 隅高柱로 나누는데, 건물에 따라 우고주는 세우지 않을 수도 있다.

공포(拱供包·貢包) 치마 끝의 무게를 받치게 하려고 기둥머리 같은 데에 짜맞추어 낸 나무쪽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 흔히 柱頭·小累·攔遮등으로 짜인다.

굴도리 한식 목조 구조체에서 단면이 둥그렇게 된 도리.

귀마루 지붕의 귀에 있는 마루. 추녀 위에 있는 마루. 추녀 마루.

귀면(鬼面) 내림마루나 귀마루, 또는 사래 마구리에 붙인 동물 모양의 장식.

기단(基壇) 건물, 비석, 탑 따위의 밑에 한층 높게 만들어진 地壇. 여염집에서는 '죽담'이라 부른다.

기단석(基壇石) 기단에 쓰이는 돌.

기둥(柱) 건축물의 간살을 표준하여 주춧돌 위에 세워서 보, 도리등을 받치는 나무. 기둥은 흔히 둥근 기둥이나 모기둥이 쓰이는데, 절의 건물에는 대부분 圓柱가 쓰인다. 또한, 기둥은 그 위치나 쓰임에 따라 平柱·隅柱·內高柱·隅高柱·四天柱·刹柱·童子柱·活柱 등으로 나누고, 기둥을 짚는 기법에 따라 통기둥·홀림기둥·배홀림기둥 등이 있으며, 그 밖에 귀솟음·오금법등의 법식도 있다.

납도리(角桁) 한식 나무 구조에서 단면이 사각형인 도리. 통나무의 불치를 hollow하여 반듯하게 다듬어 사용하는 도리인데, 이를 '민도리'라고도 하며, 주로 격조가 떨어지는 건물에 쓰인다.

납도리집(角桁家) 기둥 위에 사각형 단면으로 된 도리를 얹어 꾸민 집.

누마루(樓一) 다락처럼 높게 만든 마루.

대공(臺工) 대들보 위에 서서 종보와 중도리를 받치거나, 종보 중앙에 서서 종(마루)도리를 받치는 구조물. 중도리를 받치는 것을 중대공, 종 도리를 받치는 것을 마루대공이라 한다.

도리(桁, 樑) 기둥과 기둥 위에 돌려 얹히는 굵은 재목. 그 위에 서까래를 얹게 되는데, 굴도리·들도리·빋도리·뺨도리 등의 종류가 있다.

막새(莫斯) ①처마 끝을 잇는 수키와.

맞배지붕 건물의 측면에서도 지붕면이 용마루까지 올라가게 되어, 측면에 삼각형의 벽이 생기는 지붕.

민홀림 기둥 등의 상부 직경이 가장 작고, 중간의 단면 직경이 이보다 크며, 하부 직경이 가장 크게 깎아 다듬는 기법의 한 가지.

민홀림 기둥 민홀림 기법에 의하여 아래로 내려올수록 직경이 커지게 다듬어진 원기둥.

박공(朴工·牌拱·搏拱) 마루머리 합각머리에 '人'자 형상으로 맞붙인 두꺼운 널. 牌風 또는 박공널이라고도 하다.

방풍판(防風板) 맞배지붕의 좌우 마구리에 박공널 아래로 비바람을 막기 위하여 박공벽에 붙여 댄 널판지. 널판지를 帶木에 의지하여 붙이고, 판자와 판자 사이는 줄대를 덧대어 붙인다.

배홀림 기둥의 중간이 가장 굵게 되고, 상하로 가면서 점차 가늘어지게 하는 기법.

기둥 높이의 3분의 1되는 부분이 가장 굵고, 위는 밑동보다도 더 가늘어지게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같은 기법은 기둥의 구조상의 안전성과 시각상의 착오를 시정하고자 하는 착상에서 나온 것이다. 이를 '엔터시스'라고도 한다.

사모지붕(四一) 네모 반듯한 정방형의 평면인 건물에서 형성되는 지붕이다. 작은 碑閣, 鐘閣에서 亭子나 측간에서, 또는 塔婆와 같은 건축물의 지붕이다.

삼문(三門)대궐이나 公廨앞에 있는 문. 正門, 東來門, 西來門의 셋이었다.

솥줄대문(一大門) 지붕이 좌우간 또는 행랑채의 지붕보다 높이 솥게 만든 대문. 高柱大門·高設柱大門.

쇠살문(鐵箭門) ①성곽의 水口등에 사용되는 쇠로 만들어진 철문.②쇠창살을 댄 대문.

수키와 두 암키와 사이에 얹어 놓는 기와.

암키와(女瓦) 지붕의 고랑이 지게 짝혀 놓는 기와.

연등천장(澈上明造) 삿갓천장의 연골벽을 仰土하여 치장한 천장.

연목(椽木) →서까래.

외목(外目) 기둥의 바깥쪽.

외목도리(外目桁) ①包作 바깥에 서까래를 얹기 위하여 가로 얹는 도리. ②기둥의 중심선 바깥쪽에 나가 걸리는 도리.

외삼출목(外三出目) → 출목

용두(龍頭) 지붕 장식의 한 가지. 용머리. →망새

용마루(樑城) 기와지붕에서 가장 높은 마룻대. 마룻대는 기와만으로 쌓거나 三華土로 싸바르거나 한다. 중마루.

우물마루 짧은 널을 세로 놓고 긴 널을 가로 놓아 井자 모양으로 짜인 마루.

우물천장(一天障) 소란반자로 된 천장. 곧, 바둑판처럼 井자 형으로 된 천장.

우미량(牛眉樑) 주로리와 중도리, 중도리와 중중도리 사이를 건너지르는 角材

우진각 지붕 지붕의 측면 구성에서 팔작지붕과 같은 합각을 두지않고 용마루로부터 바로 기왓골이 시작되는 유형의 지붕이다.

이수(螭首) ①용 모양을 새긴 비석의 머리돌.②궁전의 섬돌이나 도장 또는 鐘鼎등의 팔 없는 용을 새긴 돌.

이익공(二翼工) 기둥 위에 덧붙이는 쇠. 촛가지가 둘로 된 익공. 도리 및 장여를

花盤, 기둥위에는 두공으로 받치고 창방과 두공 또는 보아지가 쇠서 모양으로 바깥에 내민 部材, 또는 그렇게 꾸미는 일.

장여(長櫓) 도리 밑에서 도리를 받치고 있는 모진 나무. 보통 두께 세 치, 높이 다섯 치이다. 長舌

장혀(長舌) → 장여

종량(宗樑) 지붕틀 위에 있어서 대들보위에 동자기둥을 양쪽에 세우고 그 위에 건너대어 대공을 받는 가로재.

주두(柱頭·柱料) 기둥머리 위에 놓여 包作을 받아 공포를 구성하는 대접처럼 넓적하게 네모난 나무.

주심포(柱心包) 기둥머리 바로 위에서 받친 공포.

주초석(柱礎石·礎石) 기둥을 받치는 여러 가지 모습의 돌.

중도리 ①서까래 중간을 받치는 수평으로 된 도리 ②중도리와 주심도리 사이에 놓인 중간도리.

지붕널(蓋板) 지붕이나 서까래 위를 덮는 널.

창방(昌枋) 대청 위의 장여 밑에 다는 넓적한 도리.

청판(廳板) ①마룻바닥에 까는 널. 청널. ②구조물에 쓰이는 널의 총칭.

초익공(初翼工) 한식 나무 구조건축의 가장 간단한 공포 구조에서 익공이 한 개인 것.

출목(出目) 공포에 있어서 첨차가 柱心으로부터 돌출되어 도리나 장여를 받친 것.

취두(鷲頭) 용마루 좌우 끝에 설치하는 장식 기와.

팔작지붕(八作屋蓋) 기와지붕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성미를 지닌 지붕. 좌우 측면에 合閣이 있는 4면 구성의 지붕이다.

평고대(平高臺) 처마·서까래·부연 등의 끝에 거쳐 대는 가로재.

평방(平枋) 栱包 등으로 받치기 위하여 기둥 위에 初枋을 짜고, 그 위에 수평으로 올려 놓은 넓적한 나무.

포(包) 동양식 목조 건축에 있어서 처마를 길게 내밀기 위하여 기둥위 처마도리 밑에 짧은 부재를 써서 장식적으로 받게 한 部材의 총칭. 栱包와 山彌의 총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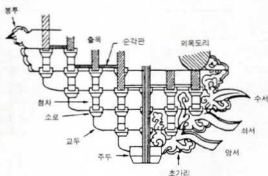
풍판(風板) 비바람을 막기 위하여 박공벽이나 합각벽을 가린 널빤지. 띠장·널·툼막이대로 구성된다. 방풍판의 준말. 차양의 한 가지.

홍살(紅箭) ①솟을대문 등의 문 바로 위에 창사 모양으로 공간을 막아 세워 댄 화살. ②홍살문 위에 댄 살. 대개 빨간 단청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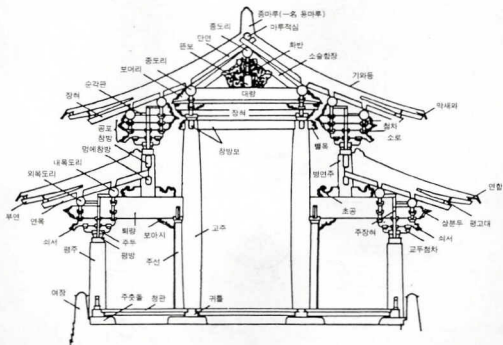
홍살문(紅箭門) 陵·園·廟·궁전·관아 등의 정면 입구에 세우는 붉은 칠을 한 문. 둥근 기둥 두 개를 세우고 지붕이 붉은 살을 죽 박았다. 紅門

홍예문(虹霓門) 문얼굴의 윗머리가 무지개같이 반원형이 되게 만든 문. 아치. 홍예. 홀처마 처마 서까래만으로 된 처마. 부연을 달지 아니한 처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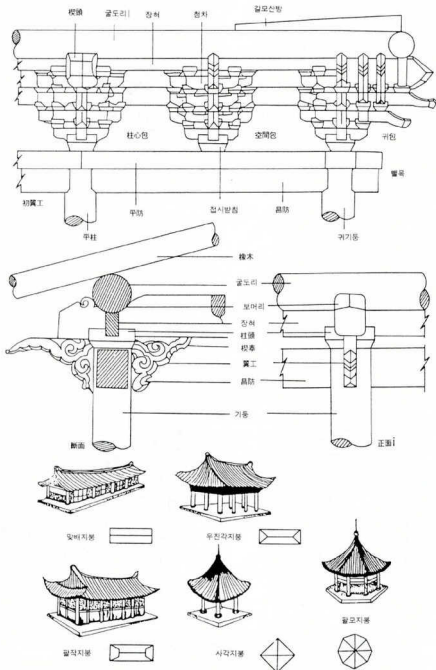
木造建物の 各 部分 名稱(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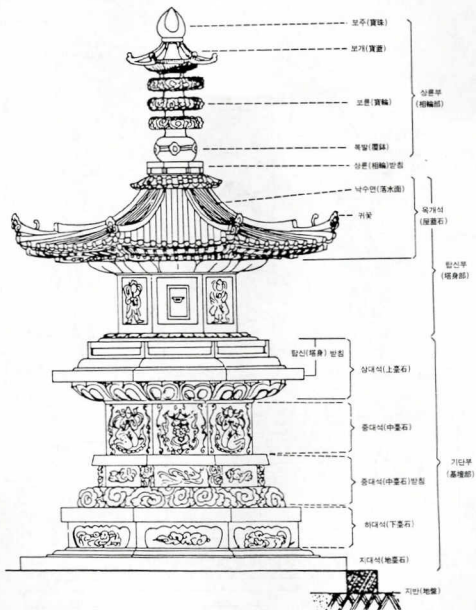
拱包 構成의 圖解



木造建物の 各 部分 名稱(2)



石塔의 部分 名稱 (2)



佛像의 各 部分 名稱

